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ostonkorean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모이면 다들 힘들다는 얘기 뿐”

기록적인 눈폭풍에
한인 업소들 한숨만 뚝뚝
가게 문 닫는 날 더 많아
손님 매출 “뚝”
경제적 타격 심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의 한인 업소와 고용된 직원들 모두가 2015년 겨울 기록적인 눈 폭풍과 한파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주말 또는 주초 쏟아진 폭설로 업소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많았을 뿐더러 문을 열어도 곳은 날씨에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졌다. 식당, 세탁소, 식품점, 미용실을 포함한 많은 한인 업소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매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동안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이라는 전옥현 씨(피바디 소재 포시즌스 세탁소 운영)는 요즘 세탁업소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이

1995-1996:	107.6 인치
1993-1994:	96.3 인치
2014-2015:	95.7 인치
1947-1948:	89.2 인치
2004-2005:	86.6 인치
1977-1978:	85.1 인치
1992-1993:	83.9 인치
2010-2011:	81.0 인치
1915-1916:	79.2 인치
1919-1920:	73.4 인치

보스톤 최대 적설량 겨울시즌
2015년 2월 16일 현재. 자료: 미기상청

면 다들 힘들다는 얘기 뿐”이라며 세탁업자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폭설로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았고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기 시작하면 연 손님이 끊긴다”라는 것이다.

전 씨에 의하면 “세탁업소는 험난한 경기 침체를 앓고 있다. 폭설이 아니더라도 2월이 세탁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전했다. 업친 데 덩친 격으로 기록적인 눈폭풍이 찾아와 고비를 넘기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제는 눈만 봐도 속상하다는 제키 정 씨(브루클라인 소재 야수 레스토랑 운영)는 “첫 눈폭풍이 왔던 날 문을 닫았지만 예약 손님의 항의가 들어와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문을 닫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에도 예약이 거의 취소됐었다. 하지만 하나의 예약 때문에 매일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 결코 투정부릴 수 없다는 정 씨는 “그저 얼른 봄이 와서 모두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미셸 서 씨(울스톤, 캠브리지 거주 순두부 운영)는 이번 폭설로 인해 매

▶▶7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눈 사진 공모전 최우수작



‘나홀로 길을 걸을 때면..’ 김시훈 작.

관련 기사 3면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Since 1979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loanDepot.com, LLC d/b/a Mortgage Master, 102 Elm Street, Walpole, MA 02081. Telephone 508-850-4100. Fax 508-850-4200. All rights reserved. NMLS ID #174457 (www.nmlsconsumeraccess.org) Massachusetts Mortgage Lender/Broker License MC174457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 일식당: 매상 \$600k+, Beer&Wine License 포함, 고정적인 수입, 보스톤 인근, Asking: \$250,000
- 일식당: 매상 \$800k+, Beer&Wine License 포함, 많은 유동인구, 좋은 위치, 보스톤 인근, Asking: \$500,000
- 단독건물 식당: Business only, Peabody위치, 150+석, Full liquor, 50+파킹, Asking: \$250,000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눈폭풍으로 오바마케어 등록 마감일 연장

23일 월요일까지 오바마케어

신청할 수 있어

보스톤코리아, 가입 돕는 세미나 개최



폭설로 인한 헬스케어 서비스 지연으로 오바마케어 등록 마감일이 23일로 연장됐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연이은 눈폭풍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등록 마감일이 23일로 연장됐다. 오바마케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일주일의 기한이 주어진 셈이다.

매사추세츠 주 보험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헬스커넥터의 미디어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는 “눈폭풍으로 인해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헬스커넥터는 15일 이었던 마감일을 23일로 연장키로 했다” 며 지난 13일 금요일 발표했다.

현재 1,486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2010년 센서스가 발표한 2만 5천 여명의 약 5.6%밖에 안되는 수치로 많은 한인들이 언어의 장벽이나 불편한 절차 때문에 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번 마감일이 연장된 소식은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눈폭풍으로 인해 보험 등록 마감일

이 연장된 곳은 매사추세츠 뿐만이 아니다. 로드 아일랜드도 23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했으며 뉴욕 주도 2주 연장을 발표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정부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기존 마감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시스템상 오류가 생겨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티 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 외부 인증 기관의 소득 증명을 받지 못해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밤늦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상, 웹사이트 시스템

상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욕을 포함한 총 37개 주에서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아직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보스톤코리아는 신청을 돕는 무료 세미나를 실시한다. 컴퓨터 앞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세미나를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코리아(617-903-301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매스헬스 대상자는 공개등록 기간이 끝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직 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스헬스 대상자도 보스톤코리아 세미나를 신청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오바마 추방유예 신청 잠정 연기

텍사스 연방지법 일시중단 명령에 불법 체류자 우려 증폭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조롭게 추방유예 신청이 진행될까 봐” 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뉴보스톤니안은 2월 26일 목요일을 다카 데이(DACA Day)로 지정하고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계획하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무료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청 날짜가 연기된 점과 관련해 워크숍의 날짜를 미룰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다. 다만,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도와준다는 사기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이민신분 혹은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케 한다. 혜택 수혜자들은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18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DACA)가 텍사스 연방지법의 일시중단 명령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민개혁이 발표된 후 서류를 준비하며 신청을 기다리던 불법 체류자들은 망연자실한 채 오바마 정부의 다음 행보를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텍사스 주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던 판사는 지난 17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보스톤 시 뉴보스톤니안(New Bostonian)의 일라이자 스파크스 컨설턴트는 “이와 같은 일시적인 장애는 반이민 주들이 의견을 합친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펴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눈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김시훈 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 눈사진 공모전 최우수작품상은 김시훈 씨의 '나 홀로 길을 걸을 때면'으로 결정됐다. 이외 6명의 출품작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보스톤코리아가 보스톤 역사상 한 달간 최고 적설량을 보인 2015년 겨울을 맞아 개최한 실시한 눈 사진 공모전에는 80여개 사진 작품이 출품되었다.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물론 정성이 담긴 작품이 많아 당첨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은 당첨자 선별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작품 선정은 보스톤코리아 편집진과 사진기자 출신 사진가 전성현 씨가 함께 했다.

심사에서는 역사적인 적설량을 보인 보스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재밌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어 선정했다. 또한 사진의 주제가 명확한 것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최우수상 김시훈 씨의 '나 홀로 길을 걸을 때면'은 구도가 좋고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다수 심사위원이 1위 표를 던졌다.

2등은 오창석, 프레스턴 곱(Preston Gwark), 정슬기, 임지민, 박태



오창석 씨의 '찰스 강'은 얼음 위로 눈이 수북히 쌓인 찰스 강과 그 위에 떨어지는 석양을 잘 포착했다



프레스턴 곱 씨의 '보스톤 풍경 5'은 케임브리지에서 보스톤 프루덴셜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눈에 덮힌 찰스강과 잘 어울려 선정되었다

진(Taejin Park), 베로니카 김 씨가 무순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 있어 한 편집진은 "사진 촬영을 위해 눈덮힌 보스톤 커먼을 찾은 노장 이기환 선생님의 작품과 다른 많은 분들의 성의있는 작품을 고르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지은, 에리카 김, 윤이나, 강윤정, 전희준, 전훈석, 제니퍼 한, 곽정수, 김승세 씨의 작품은 2차 선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했다. 김시훈 씨와 프레스턴 곱(Preston Gwark)씨의 경우 좋은 사진이 겹쳤지만 1인 1장 선택의 원칙에 따라 1장씩만 선정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임지민 씨의 'Free skiing-as you wish'는 눈과 함께 스키타는 모습으로 폭설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선정되었다



정슬기 씨의 '유니온 오이스터 하우스 앞 길 4'는 블리자드가 막 시작되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노스엔드 유니온 오이스터 하우스 앞 무런 발자국 없는 거리와 퍼붓는 눈이 잘 표현되었다



박태진 씨의 '스노우 엔젤(Snow angel)'은 하얗게 덮힌 체스넛 힐 저수지와 눈 언덕에 누워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베로니카 김 씨의 'Path to parking lot'은 눈이 쌓인 깊이를 가장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2위에 함께 선정되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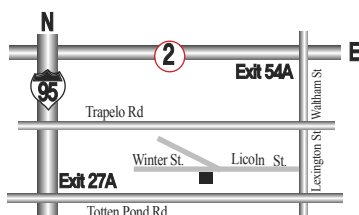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유쾌한 창업 경험 나누는 '한인 창업토크' 열린다

하버드, MIT, 뱀슨 대학교 학생회 주최
K큐브, SK 텔레콤 벤처스 파트너, 웰드레스드 대표 한 자리에 모여

샘플 대표는 “외국인의 한국 창업 (Entrepreneurship in Korea as a Foreigner)”, 데이비드리 K 스타트업 대표는 “실리콘 벨리와 한국 (Best Practices, Lessons Learned)” 이라는 주제로 진솔한 강연을 전달할 예정이다. 초청 연사들의 개인 스피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인 창업자들의 진솔하고 유쾌한 창업 경험담을 나누는 ‘한인 창업 토크 (Korea Entrepreneurship Talk)’ 가 오는 3월 8일 일요일 MIT 경영대학원 TDB에서 열린다.

MIT 아시아 비즈니스 클럽(회장 백승민)과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회장 우성훈), 하버드 한인 학생회(회장 최민석), 뱀슨 타이 오프 클럽(회장 박가영)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날인 7일에 열리는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날 토크 이벤트에는 K큐브(K Cube)의 임지훈 대표(Jimmy Rim)와 SK 텔레콤 벤처스 파트너의 K 스타트업의 공동대표인 데이비드리, 웰드레스드(Well Dressed)의 대표 토드 샘플(Todd Sample)이 연사로 참석한다.

백승민 MIT 아시아 비즈니스 클럽 회장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등록하길 바란다” 며 “아울러 이날 행사에 간단한 다과를 지원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하는 중” 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 기획된 ‘한인 창업토크’에서는 보스톤 방문이 드문 유명 연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한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참석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된 이날 창업토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링크(koreaetalk.eventbrite.com)를 통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임지훈 K큐브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공비법은 없다”, 웰드레스드의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북

(facebook.com/events/597385230394971)에서 알 수 있으며 다과 스폰스에 대한 문의는 백승민 씨 (passmin@gmail.com, 646-421-0535)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5년 3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9시

장소: TBD, MIT 슬로언 경영대학원 (50 Memorial Dr. Cambridge, MA 02142)

행사일정

dyoo9146@bostonkorea.com

KOREA ENTREPRENEURSHIP TALK IN BOSTON
Sunday, March 8th, 2015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50 Memorial Drive, Cambridge, MA
facebook.com/events/597385230394971

Speakers: Jimmy Rim (Kube Ventures), David Lee (SK Telecom Ventures, KStartup), Todd Sample (Well Dressed)

Sponsors: MIT, Asia Business Club, MIT KGSA, Tie-off

보스톤 지역 대학생회가 주최하는 한인 창업토크가 오는 3월 8일 일요일 열린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 백린 Rin Paik
- 신영각 YoungGak Shin
- 공정원 JungWon Gong
- 김은한 EunHan Kim
- 백영주 YoungJoo Paik
- 성기주 KiJoo Sung
- 신영 Young Shin
- 윤희경 HeeKyung Yoon
- 이명덕 MyoungDuck Lee
- 앤드류곽 Andrew Koak
- 앤젤라엄 Angela Um
- 정준기 JoonKi Jung
- 이선영 SunYoung Lee
- 소피아 Sophia
- 홍하상 HaSang Hong
- 오승준 Albert Oh
- 이명원 Myung Won Lee
- 장동희 Donghee Jan
-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연극
617-955-9459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MIT 한국어 강의 개강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3월 4일 개강 예정
자원봉사 강사진 필요해



지난 학기 박중희 씨가 진행했던 MIT 한국어 강의의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MIT 한인 학생회에서 운영되는 무료 한국어 강의가 3월 개강을 앞두고 자원봉사로 나설 강사진을 모집 중에 있다.

현재 강사진에는 MIT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누구나 강사로 참여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누구나 학생으로 참여 가능하다.

매 학기 50여명의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MIT 한국어 강의를 듣는다. 한국 드라마나 가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국제결혼을 한 사람 혹은 한인 입양인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는다.

MIT 기계 공학 박사과정의 박중희 씨는 학과 선배의 권유로 2년 반 전부터 한국어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박 씨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그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재미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 고 전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원어미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박 씨는 말한다. 박 씨에 의하면 “보스톤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원어민과 이야기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어 강의의 목적” 이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으로서 체계적인 교육 없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 한국인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암기 형식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을 때 박 씨는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런 강사들을 잘 따라오고 어설픈 발음으로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박 씨는 그저 대견하다.

실제로 한 학생은 몇 년 전부터 한국어 선생님이로 활동하며 인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이지만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덕분에 박 씨는 하루하루 일에 보람을 느낀다.

기초, 초급, 중급으로 나누는 한국어 강의는 봄과 여름, 가을 학기 매주 1회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이 진행된다. 강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학기당 약 3회 정도의 수업을 맡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강사로 자원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이메일(korean_class_teachers@mit.edu)로 연락하면 된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강의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site/mitkoreanclass/)를 통해 알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과기협 2015년 심포지움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MIT E25동 111호에서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KGSA)와 공동으로 2015년 연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과기협은 기술 분야와 창조 경제에 관련된 창업으로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를 정하고 “과학 기술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선정했다” 고 밝혔다. 재료 분야의 정영준 교수(Northeastern University), 시각 및 응용 분야의 황대준 박사(Harvard Medical School), 정재현 박사(Harvard Medical School)가 과학 기술 분야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리디아 스크로터(TekOne, Golden Seeds) 대표가 엔젤 투자자로서의 경험담과 창업에 관해 강

연을 전달한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무료다.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과기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LG전자와 SK 후원으로 제공되는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며 현장에서 간단한 한식(김밥, 유부초밥)과 함께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킹을 갖는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 등록,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홈페이지(www.kseane.or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과기협 이메일(contact@kseane.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MIT E25 동 111 호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설날 특집〉

한국의 술 막걸리, 집에서 직접 담그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명절이면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 특히 막걸리는 최근에 한국 식품점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집에서 직접 제조되어 손맛이 배어 있는 정통 막걸리를 마실 수 있기를 쉽지가 않다. '설날특집' 으로 보스톤코리아는 쌀 막걸리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준비물

쌀 막걸리에 필요한 재료는 고두밥용 쌀과 누룩, 물, 술 항아리(혹은 플라스틱 용기), 가는 채와 찹쌀이다. 쌀은 맵쌀이나 찹쌀을 사용하면 되지만 보통은 비교적 수월하고 맛있는 찹쌀을 사용한다. 누룩가루는 H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 1파운드(약 454g) 한 팩이 \$3.49에 판매되고 있다. 4리터의 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찹쌀 2kg이 필요하다. 누룩은 찹쌀의 1/5인 400g, 물은 찹쌀의 1.5배인 3리터를 사용하면 된다.

▶맛있는 막걸리를 위한 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룩이 적을 경우 발효가 잘 되지 않는 이상 발효가 생김과 누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발효는 되지만 쓴 맛이 나기 쉬워 술 맛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물의 양도 중요하다. 물이 적게 들어가면 단맛을 강해지지만 발효시간이 길어진다. 반대로 물이 많이 들어가면 발효는 잘 되지만 술의 맛이 시어진다. 물은 생수를 사용해야 하며 수도물을 사

용할 경우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윗물(단물)만 사용하면 수도물의 냄새를 잡아줄 수 있다. 한편, 술을 담는 용기로는 숨을 쉬는 술항아리가 제격이지만 없을 시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도 된다. 술항아리는 가스렌지에 거꾸로 올려 바깥면이 따뜻해질 때까지 불을 켜어 소독을 시킨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한 후 햇빛에 말려 잡균을 제거해 준다.

1. 고두밥 만들기

찹쌀은 여름철에는 8시간, 겨울철에는 10시간 정도 불려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게 하고 1시간 정도 채에 올려 물기를 빼준다. 불려 놓은 찹쌀은 찹통에 면 보자기를 깔고 짜면 된다. 찹쌀 중간에 주먹만한 흠을 만들면 가운데로 김이 올라와 더 맛있는 고두밥을 만들 수 있다. 20분 정도 쪄 후 뚜껑을 열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후 주걱으로 잘 섞어준다. 이렇게 40분을 쪄주면 된다. 고두밥이 완성되면 잘 퍼서 식혀 준다.



2. 누룩을 넣고 반죽하기

고두밥을 짓기 시작할 때 즈음 누룩을 준비한 물에 불리기 시작한다. 1시간 정도 불린 누룩과 물 혼합물을 식은 고두밥에 넣고 잘 섞어준다. 밥알이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풀어주면 된다.



3. 용기에 담기

혼합물을 술항아리에 담아준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뚜껑으로 밀봉하지 않고 고두줄을 이용해 면포로만 덮어준다. 8시간 후부터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잘 저어준다. 효모의 생육을 위해 적당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시큼달달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벌써 막걸리가 만들어진 것 마냥 뿌듯한 순간이다. 이렇게 3~4일을 반복한다. 발효 온도는 섭씨 23도에서 28도며 최적의 온도는 25도로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어야 한다. 3~4일 후에는 밥알이 작아지고 국물이 많아진다. 잊지 않고 매일 두 번씩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효시키면 10~14일



후에는 누룩 찌꺼기 등은 채로 걸러내고 먹을 수 있다.

4. 채로 거르기

채로 거르지 않은 상태의 술을 '탁주'라고 하며 알콜 농도는 12도 정도다. 한편, 채로 거르면 과정에서 물과 섞으면 막걸리의 알콜 농도는 6도가량이 된다. 가는 채에 막걸리 한국자 정도를 올리고 물을 1:1 비율이 되게 부어 손으로 비벼주면 희석되어 걸러진다. 채로 거른 술을 믹서기를 사용해서 갈아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날씨 및 대중교통 마비로 손님 대폭 줄어, 직원 수입도 뚝

▶▶1면에 이어서

출이 30~40% 가량 떨어졌다고 전했다.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되어 손님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서 씨에 의하면 떨어진 매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영하를 밀도는 한파에 밤에도 식대 내 히터를 켜야야 한다. 다음달 전기료도 큰 걱정” 이라고 전한 서 씨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 업소 주인만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인 학생들도 손님이 대폭 줄어 텨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렌트비 등의 지출은 일정하니 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차가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마비된 대중교통으로 인해 출퇴근 시 오지 않는 버스나 전철을 기본적으로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올스턴의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정 씨는 “매일 아침 설 자리

조차 없는 버스를 수십분 동안 기다린다” 며 “다행히 저녁에는 사장님이 라이드를 주시지만 출근할 때에는 불편함을 이룰 말할 수가 없다” 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가주순두부 올스턴 지점 앞의 쌓인 눈을 치우는 한인들

발로 뛰는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요> 미주 배포

뉴튼 한인 고교생 동아리 '나비' 보스톤서 배포 담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요(Can You Hear Us)' 영문판의 배포를 시작한 일본군 성폭력 사이버 역사박물관이 본격적인 위안부 알리기에 나섰다.

일본군 성폭력 사이버 역사박물관은 지난 1월 8일 열린 기자회견 후 '들리나요' 영문판 30여권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소재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며 뉴욕과 뉴저지의 언론인 및 정치인들에게 구술집을 직접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영문 배포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요일 뉴저지 소재 몽클레어 주립 대학을 찾아 영문판 구술집을 전달했다. 크리스토퍼 살바토르 범죄학 교수와 가브리엘 루빈 교수는 책 증정을 매우 기뻐하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범죄행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개최 및 위안부 피해자 관련 강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케빈 롱코 교수는 현재 일본군 성폭력 사이버 역사박물관이 상영할 위안부 피해자 영화 '그리고 싶은 것' 의 몽클레어 주립대 상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측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들리나요' 영문판의

보스톤 배포는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의 교내 클럽 '나비' 가 담당한다. 3월 초에 기획된 교내 위안부 관련 세미나를 통해 학생 및 교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위안부 배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군 성폭력 사이버 역사박물관의 각종 SNS(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성폭력 사이버 역사박물관(www.ushmocw.org)은 한인 미디어 업체인 미디어 조아(대표 마크 한)가 지난해 12월 개설한 미주 유일의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다.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역사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와 피해자 증언, 일본군 위안부 자료, 갤러리, 위안부 관련 뉴스 및 행사를 소개한다.

영문판 배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미디어 조아(한 대표, 646-361-9994)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사진 뉴스> 전신마비 아내 17년 뒤 바라지고 최형철 씨 장례식



지난 14일 보스톤 세인트 마이클 세미트리(St. Michael Cemetery)에서 열렸던 (고)최형철(61)씨의 장례식에서 미망인 최혜연씨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사진: 전성현(사진가)



지난 14일 열린 (고) 최형철(61)씨의 장례식에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약 60여명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은 조문객들이 (고)최형철씨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전성현(사진가)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시민협회,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컨퍼런스 참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결성된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의 컨퍼런스에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참석했다.

오는 7월 워싱턴 디씨에서 열릴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대회 준비하기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뉴저지 잉글우드 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매사추세츠 대표이자 시민협회 이사인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시민협회의 임균택 사무차장, 리디아 신 이사 등이 준비일정에 참가했다.

미국 13개 주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여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컨퍼런스는 한인사회 내의 풀뿌리 시민 참여 활동, 유권자 운동 방법,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시민참여센터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뉴저지 지역의 위안부 건립비를 돌아보고 각 지역 한인사회의 현황과 활동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협회 임균택 사무차장은 프레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뉴저지에서 열린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컨퍼런스에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젠티이션을 통해 시민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차세대 심포지움, 정치인턴 프로그램, 저널 편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는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모태로 만들어진 단체로 미주내 한인들의 유권자 운동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신장을 도모한다. 한인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매사추세츠 주 대표로는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김성혁 회장이 임명됐다.

한편, 시민협회는 오는 4월 18일 토

요일 저녁 6시 정치인턴 장학사업을 위한 모금만찬을 예년과 같은 장소인 렉싱턴 소재 렉싱턴 엘크스 클럽에서 개최한다. 초청연사로는 대니얼 고 보스톤 시장 수석 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협회 웹사이트 www.kacl-ne.org 를 참조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이경해 회장(508-962-2989) 혹은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 임균택 사무차장(kyuntaek001@gmail.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아베 총리 합동연설 탄원 캠페인 실시

“신사참배 앓을 시에 합동 연설 허락할 것”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 탄원서 제출키로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매사추세츠 주 대표로 임명된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일본군 성노예 추모비를 방문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김성혁 매사추세츠 대표가 ‘아베 총리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된 일본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시작된 이번 탄원서 발송 캠페인은 뉴잉글랜드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와 뉴욕, 뉴저지의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뉴저지의 시민참여센터와 비롯한 미전역의 여러 한인 시민단체들이 주도가 되어 진행된다.

탄원서에는 “아베는 이 기회에 일본의 전범 이미지를 무마하고, 명확한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얻으려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상하 양원에서 합동연설을 하는 첫 일본총리가 되고자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일본이 역사 왜곡을 통한 반미 활동을 중단하고 다시는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만 아베 총리에게 미합중국

상 하원 합동 연설을 허락하라”는 요구도 명시되어 있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탄원서를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게 보내면 된다. 매사추세츠 지역구 하원의원으로는 조셉 케네디(Joseph Kennedy)와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 마이크 카푸아노(Mike Capuano)가 있으며 탄원서는 다음 링크(kafus.org)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성혁 대표(sungh999@gmail.com)에게 하면 된다.

한편, 김성혁 대표는 오는 3월 4일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위안부 관련 세미나 ‘내가 그 증거입니다’에 강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회장 한정원)가 오는 2월 28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피어스(Mt. Pierce)로 정기산행을 간다.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3.5이며 산행 소요시간은 6시간이다. 왕복 6마일인 크로우포드 패스(Crawford Path) 트레일을 따라 가며 산행거리가 길지 않은 관계로 A와 B 두개의 조로 산행할 예정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마이크로스파이어나 크랩폰, 게이터, 방한복, 방

풍의, 장갑, 모자, 헤드램프, 트랙킹 폴, 식수 및 간편 중식이다.

산행 당일 집결은 울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에 하면 된다. 한편, 울스톤 집결지는 차량운행 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하게 된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인 26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조(A, B)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운행차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산행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차량배정을 하게 된다. 많은 회원들의 차량운행 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차량 제공 혹은 대리운전이 가능하면 사전에 알리는 것이 권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나 다음 번호(617-851-1883)로 하면 된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꼭 참았던 대중교통 이용객들 점차 분노

버스로 옮겨타고, 기다리고 MBTA측은 자세한 설명 없고 승객들 점차 분노 폭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기록적인 폭설로 운행중지, 지연운행, 버스 대체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 교통 이용객들이 지하철의 문제가 지속되자 점차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17일 MBTA 베벌리 스카트 제너럴 매니저가 완전 정상운행까지는 최소한 한달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은 이 같은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럼에도 MBTA측은 한달 동안 어떤 복구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향후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벌리 스카트 제너럴 매니저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지 점차적으로 서비스가 회복될 것이며 이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중 교통 이용승객들은 각 지하철 운행 정보가 부족하며 장기적인 개선 전망도 보이지 않자 급기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MBTA 자문위원회 폴 레이건 씨는 "MBTA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승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 승객들에게 대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MBTA의 업무다" 라고 말했다.

승객들에게 왜 MBTA가 정상운행에 이르기까지 1달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한다면 승객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는 게 레이건씨의 지적이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 역은 눈에 덮여있고 역은 폐쇄되었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30일간의 복구 시간은 최대한의 시간을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그보다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장된 약속 후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주지사는 대중교통의 복구가 지금 가장 우선적인 주지사의 임무라고 밝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예산 확보 및 보수유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주지사인 자신이 MBTA를 직접 관할하지 못하며 여러 이사회 멤버 중 한 자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주지사의 적은 권한을 불만스러워했다.

주지사는 또 컴퓨터 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회사 케올리스(Keolis)를 지적하며 컴퓨터 레일의 단축 및 연장 운행에 대해 불만을 표실했다. MBTA의 제너럴 매니저 베벌리 스카트 이 회사의 운영이 기대수준 이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케올리스가 운영하는 컴퓨터 레일은 운행 취소는 물론 만성적인 지연운행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퇴근길에는 30여대의 열차편을 취소했으며 그

린부시 라인의 경우 한 열차가 16일 밤 눈에 갇히면서 17일 운행을 전면 취소기도 했다.

케올리스 측은 자신들의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폭설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보통 63대의 열차 편이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40여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많은 열차들이 고장났으며 현재 많은 계약사들이 이들 차량의 정비에 나서 수리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여분의 차량까지 모두 운행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 수리율은 일주일에 20대 정도다.

그러나 차량의 문제가 현재의 지연 및 단축운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 MBTA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출된 철로 위에 수북이 쌓인 눈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T측에 따르면 레드라인에 200여명, 오렌지 라인에는 60여명이 선로를 치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라인의 경우 현장에 아직까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다.

hsb@bostonkorea.com

대중들 거센 반발 직면 MBTA 다음주 월요일 노선복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중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MBTA가 노선 복구 일정을 공개하고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23일 월요일까지 전 노선의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MBTA는 그린 E라인의 경우 금요일 그리고 B라인의 경우 23일 월요일까지 다시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라인 JFK/UMass 역에서 노스 퀸지에서 브레인트리역까지는 23일 월요일 운행을 재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T의 제너럴 매니저 베벌리 스카트는 16일 월요일 정상운행까지는 1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그동안 불편에도 인내심을 발휘해왔

던 승객들의 분노를 터트리고야 말았다.

MBTA는 18일 저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하철 노선의 복구 계획과 시간표를 발표하고 "전례없는 폭설로 인해 오랜 기다림과 복잡한 승차과정을 초래했다" 고 밝히고 "열차의 정상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16일 베벌리 스카트의 기자회견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현재 오렌지 라인은 정상서비스의 56퍼센트, 레드라인은 76퍼센트, T의 제너럴 매니저 베벌리 스카트는 16일 월요일 정상운행까지는 1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그동안 불편에도 인내심을 발휘해왔

hsb@bostonkorea.com

MBTA 정상운행까지30일 더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앞으로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또 다른 큰 폭설이 내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다. 폭설이 한바탕 더 몰아치는 경우 봄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MBTA 제너럴 매니저 베벌리 스카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과 같은 대형 폭설이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30일 이후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MBTA 지하철 및 전철 철

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매사추세츠 재난관리본부와 교통부 그리고 연방 재난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철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상 운행은 아직 요원하다. MBTA 직원들은 다른 노조 직원들과 형무소 복역자 등의 인력들과 함께 계속해서 선로의 얼음과 눈을 치우는데 열중했다.

MBTA 서비스는 지난 주말 폭설 이후 제한적으로만 운행됐고 현재도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술은 직접 가져 오세요” 보스톤 시, 레스토랑 BYOB 고려 중

보스톤 시의회 레스토랑 손님 술 반입 허용 법 공청회 거쳐 정부 운영위원회 표결 작은 식당 불황 타개 환영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촌과 빈촌의 계층을 더욱 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촌에서는 리커 라이선스 식당이 계속 운영될 것이고 도체스터, 하이드 파크, 매타팬, 락스베리 등 흑인 밀집지역에서만 이런 술집이 횡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자주 순두부에서 순두부 찌개에 소주를 곁들이고 한마루 식당에서 감자탕에 소주를 함께 한다. 오빠스시에서 스키에 사케를 마시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손님 스스로가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 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BYOB(bring your own bottle)를 허용하는 방안이 보스톤 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미셸 우 시의원과 스티븐 머피가 공동발의 한 이 법안은 보스톤의 작은 식당들에게 손님들의 술병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레스토랑 개점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지난주 11일 열린 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이 정책에 강한 회의를 표시했다. 보스톤의 리커 라이선스 수를 늘리는데 앞장 섰던 어나야 프레슬리 시의원은 이 BYOB정책이 저소득

이와 더불어 BYOB는 저녁 외출식 소비를 낮춰서 오히려 웨이팅 스탬프들의 팁을 감소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빌 라인한 의장은 리커 라이선스(비어앤와인의 경우 \$75,000, 폴리카 \$375,000)에 투자한 식당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손님들은 저렴한 저녁 식사 작은 식당들은 고객 더 확보 소자본으로 레스토랑 창업 가능 경제 활성화 할 듯 -BYOB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나 나머지 시의원들은 이 법안을 시의회의 정부운영위원회(Government Operations Committee)에 부치기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의



술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들고 갈 수 있는 BOYB 법안이 보스톤 시의회에 상정됐다. 브루클라인은 현재 시행중이다

회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기로 했으며 아직 공청회 일정은 미정이다.

술병반입가능정책(BYOB)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등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스톤 인근도시인 브루클라인에서 이 정책이 채택됐다. 이들 도시에서는 BYOB 레스토랑들이 리커 라이선스를 보유한 레스토랑들과 아주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에게는 식당 개장이 용이해지지만 기존 라이선스 보유 레스토랑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시 법안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다.

고소득층 지역이 아닌 빈촌에 식당 난립 이중화 할 듯 기존 리커 라이선스 보유 레스토랑의 투자 가치 훼손 -BOYB 반대측의 주장

후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틴 월시 시장은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

이 법안은 리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식당에 고객들이 술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해왔던 오래된 규제를 풀도록 하게 된다. 이후 보스톤 라이선스 보드에서 BYOB 레스토랑에 대한 규정을 만들게 된다. 특히 라이선스 보드는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어떤 종류의 술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 보드는 술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술반입 허용료(corkage fee, 와인 마개 따주는 비용이란 뜻)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한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스킨관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진한 홍삼파워 **홍삼정**
6년근 홍삼을 최적의 조건으로 달여 그 진액만을 농축시킨 고순도 상품으로,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 홍삼상품입니다.
240g / 120g / 30g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순수 홍삼의 품미
홍삼 추출액
고품질 6년근 홍삼을 사용하여 110여년의 축적된 기술로 뿌리삼 내용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 홍삼 제품입니다.
30포 (한달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기록적인 눈에 보스턴시는 사상 최고의 제설비용을 사용했다. 월시 시장은 보스턴시 제설 작업을 무난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보스턴 단 24일만에 사상 3번째 눈 많은 겨울 위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눈에 과묵한 보스턴 올해 보스턴은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보다 눈이 많이 내렸다. 노스 다코다의 파고 시보다 더 내렸다.

비록 16일로 149.9인치를 기록한 미시간의 마케트보다는 적은 적설량이지만 지난 16일 현재 보스턴은 단 24일만에 보스턴 시 역사상 세 번째로 눈이 많은 겨울 시즌을 기록했다.

보스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눈이 내렸기 때문에 어쩌면

20일 현재 역사상 두번째 눈 많은 시즌으로 순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기상청은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다.

보스턴 시의 로건 공항에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24일간 쌓인 눈은 90.2인치(2.29미터)다. 이것만 해도 이미 사상 세번째다. 16일 현재까지 올시즌 통틀어 95.7인치였으며 20일까지는 1993-1994년 96.3인치를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기록적인 폭설에 기록적인 제설비용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
3,500만 달러
이전까지는 연평균
1,440만 달러 사용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계속되는 폭설로 보스턴 시에서 눈과 관련된 각종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보스턴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록 중 하나가 눈을 치우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올겨울 보스턴 시는 이미 역대 가장 많은 제설 비용을 사용했다.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올겨울 제설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약 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제설 작업에 배정된 예산 1,850만 달러를

한참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3,500만 달러는 보스턴 역사상 제설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된 금액이며 앞으로도 제설 비용은 더 추가될 예정이다.

보스턴 시 웹사이트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보스턴 시는 매년 평균 1,440만 달러를 제설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전까지 제설 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해는 2005년으로 2,20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2011-12년 겨울에는 540만 달러가 제설 비용으로 지출되어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올해 제설 비용으로 사용된 3,500만 달러는 이전까지의 평균 제설 비용 1,440만 달러보다 2.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게다가 아직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더 올 가능성도 많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눈을 치우는데 사용될 것이다.

제설 비용은 올해 가장 높게 지출되고 있지만, 보스턴 시는 2005년에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 제설 작업에 할당된 예산은 77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2,20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제설 작업을 위한 예산 책정은 지난 5년 간의 평균 제설 비용을 토대로 작성된다. 제설 비용에는 모래와 소금 등의 제설 장비 구입 비용 외에 제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가 포함된다.

보스턴 시는 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 정부는 계속해서 비용을 확인하겠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비상 상황에서 눈을 치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 위험 경고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잇따른 폭설로 인해 지붕 붕괴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공안전부는 최근 몇 주간 내린 눈으로 인해 지붕에 지나치게 많은 하중이 누적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안전부 토마스 게이츠니스 장관은 17일,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소유주들은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지붕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붕 붕괴의 조짐으로는 천장에 생기는 균열이 있다. 균열이 새로 생기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작은 균열이라도 더 커진다면 지붕에 있는 눈부터 빨리 치워야 한다.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지붕이나 다락방 등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또한 문이나 창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자기 열린다면 이 역시 붕괴의 조짐으로 의심해봐야 한다.

게이츠니스 장관은 지붕에 눈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비가 오거나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올 경우 지붕 위에 있는 눈의 무게가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9일 이후 현재까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74건의 지붕 붕괴 사고가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지붕 붕괴 사고는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붕에서 발생했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최대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a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정치학회, 최고 대통령은 링컨

회원 391명 상대 조사...역대 44명 중 케네디 가장 과대평가
오바마 대통령은 18위



사우스 다코타 키스톤 인근에 있는 러미모어 산맥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정치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16대), 최악의 대통령은 제임스 뷰캐넌(15대)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날'을 맞아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 정치학회(APSC) 대통령·행정정치 분과 소속 회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100점 만점의 항목별 조사 결과 링컨은 평균 점수 9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조지 워싱턴(1대), 3위는 프랭클린 D.루스벨트(32대), 4위는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5위는 토머스 제퍼슨(3대) 순이었다.

현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44대)는 평균 57점으로 18위에 그쳤다.

빌 클린턴(42대)은 8위, 로널드 레이건(40대)은 11위, 존 F.케네디(35대)는 14위, 조지 H.W.부시(41대)는 17위, 조지 W.부시(43대)는 3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오바마는 1901년 이후 선출된 19명의 대통령 가운데 입법기술 13위, 외교기술 11위, 도덕성 10위, 군 병력관리 10위로 평가받았다.

이념에 따라 양극화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는 조지 W.부시와 오바마가 손꼽혔다.

미국의 주요 대통령 4명(워싱턴,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링컨)의 얼굴이 조각돼 있는 사우스 다코타 주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명소에 1명을 더 추가한다면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꼽았다.

이는 2010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인들은 케네디를 최우선 순위에 놓았고 그의 레이건, 프랭클린 루스벨트 순으로 선택했다.

미 정치학회 회원들은 가장 '과대평가'된 대통령으로 케네디를 들었다. 레이건과 잭슨도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바마를 과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한 수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이들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았다.

과소평가된 대통령에는 아이젠하워,

워, 조지 H.W.부시, 한국 전쟁 발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S.트루먼(33대) 등이 올랐다. 트루먼은 종합평가에서 6위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번영을 이룬 대통령, 국제적 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대통령, 단임보다는 중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북전쟁 발발 직전 임기를 역임한 뷰캐넌은 미국 대통령 44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의 최하위 그룹을 형성한 이들은 워런 G.하딩(29대), 앤드루 존슨(17대), 프랭클린 피어스(14대), 윌리엄 해리스(9대) 등이었다.

미국은 지난 187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인 2월 22일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했다가 1968년부터 이를 확대,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이민개혁 시행 일시 중단" 판결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백나리 기자 = 미국 내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미국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섀다운(부내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치권 공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넨 판사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넨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민개혁안에 따른 추방 유예 신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중단 명령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 청년 이민자들이 이달 18일부터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 등의 추방 유예 신청은 5월 19일부터다.

미국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인 로런스 H. 트라이브는 "(소송을 제기한 개별) 주들은 대통령과 의회의 분쟁에서 일종의 침입자이며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를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헤이넨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민개혁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텍사스 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12개 주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33개 시장은 이민개혁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민정책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 관례는 대체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한 일에 대해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22차례나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리 주장에 최소한 한 법원이라도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 7일 오픈

Bliss Image

Open 7 Days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남녀헤어 (컷, 펴,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칼라, 코팅)
- 피부관리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네일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제모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바디 마사지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EYELASH EXTENSION COURSE AVAILABLE
Certification of Completion given

Hollywood Lashes
Semi Permanent Lash Extension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Wanted:
Chair for Rent(Hair Stylist)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증시, 미 경제지표에 울고 연방준비은행 결정에 웃고

미 연준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는다" 무게
경제지표는 예상치에 못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모습. 연준은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국제부 공용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다. 예상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경제지표는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소식은 호재로 작용했다.

18일 뉴욕증시에서 S&P500과 다우는 약보합세를 나타낸 반면 나스닥은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먼저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던 S&P500 지수는 이날 0.68포인트(0.03%) 떨어진 2099.66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도 17.73포인트(0.1%) 하락한 1만8029.85에 장을 마쳤다.

반면 나스닥은 7.1포인트(0.14%) 상승한 4906.36포인트를 기록하며 5000 고지에 한발 더 다가갔다.

뉴욕증시는 개장 직전 발표된 경제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며 하락세로 출발했다. 특히 주택착공 건수와 생산자물가지수에 이어 산업생산마저 예상보다 나쁘게 나타나자 오전 10시경에 바닥을 기록했다. 다우의 경우 1만8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공개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지수를 일제히 끌어올렸다. 조기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란 소식에 S&P500 지수는 2094.28에서 2099.14까지 수직 상승했다. 다우 역시 1만8000선을 밀돌다 단숨에 1만8047까지 회복했다. 낙폭이 비교적 덜했던 나스닥은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 연준, 금리인상 서두를 필요 없다

이날 증시의 하이라이트는 FOMC 의사록이었다. 지난 1월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결정권자 상당수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many) 참석자들은 조기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일부(several)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이 늦을 경우 높은 물가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준은 전체 17명의 참여자 가운데 누가 어떤 의견을 나타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약간 혹은 많이, 일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참석자들은 또 과거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이후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이후 첫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현재 미 연준은 2006년 이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저금리가 거품(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편에서는 조기 금리인상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연준이 물가상승률이 2%가 되기 전까지는 낮은 금리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많은 참가자들은 낮은 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사실 곧바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포워드 가이드(선제 안내)의 '인내심' 문구를 삭제할 경우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산업생산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은 소비확대를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 예상 못 미친 주택·생산자물가 산업생산에 실망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예상에 못 미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어서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먼저 미국의 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0.2%를 기록,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설비가동률 역시 79.4%로 예상치(79.9%)를 밑돌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0.2%로 집계됐

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 12월(-0.1%) 감소세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제조업 생산은 0.3%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 0.3% 감소에서 2.2% 증가로 돌아섰다. 또 변동성이 심한 유틸리티의 경우 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비 가동률은 79.4%로 지난달(79.7%)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79.9%)에 다소 못 미쳤다.

또 유가 급락에 따라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0.8%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1월 PPI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PPI는 지난 12월 0.2% 하락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PPI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이 억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도매가격이 지난해 12월 6.2%에 이어 10.3% 급락했다. 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식품 가격 역시 지난달 0.1% 떨어지는데 이어 1월에도 1.1% 하락했다. 반면 변동성이 심한 무역 서비스의 경우 0.5% 상승했다.

미국의 1월 주택착공 건수도 106만 5000건으로 당초 예상치인 107만건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월 주택허가 건수 역시 105만3000건으로 예상(107만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착공 건수는 5개월 연속 10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가 좋아졌지만 주택시장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분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백악관 "오바마케어 올해 가입자 1140만명 돌파"

910만명 예상 등록자 넘어서
2014년 800만명 보다
400만명 증가해

난 15일은 앞선 어떤 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오바마케어 등록은 지난해 11월 15일 시작돼 지난 15일 종료됐다.

그러나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소득증명 오류로 인해 등록 장애를 겪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 보건부는 이들을 위해 마감을 오는 22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앞서 오바마케어 등록자 수를 910만명으로 예상한 반면 의회 예산국(CBO)은 120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2014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며 이중 지난해 말까지 670만명이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중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의 올해 가입자가 1140만명을 넘어섰다고 백악관이 17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트위터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환자보호 및 부담자적정보험법' 즉 오바마케어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앞서 제기됐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등록 마감일이었던 지

findlove@news1.kr

미 드론 기준안 마련 아마존 등 상업 배달은 불가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무인기)에 대한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FAA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를 각각 지상으로부터 500피트(152m)와 시속 100마일(160km) 이하로 제한하고 무게는 최대 55파운드(약 25kg)로 제시했다.

또한 무선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항공 조종 시험과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드론의 비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고 규제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서에는 드론이 무선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나는 범위까지 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드론 산업계와 미 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 무인기 시스템 교역 연합의 브라이언 윈 대표는 "이번 제안은 원격조종항공기 분야에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드론 기술의 사회·경

제적 이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가까워지는 좋은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드론 산업이 향후 10년 간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820억 달러(약 90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고프로 등 일반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상해온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반발했다.

드론이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달이나 파이프라인 정밀 검사 등의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폴 미제너 아마존 공공정책 부분 부사장은 "FAA는 우리 사업과 고객들의 필요를 (제안서에) 포함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의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번 제안서는 앞으로 1년여간 여론 수렴과 세부 사항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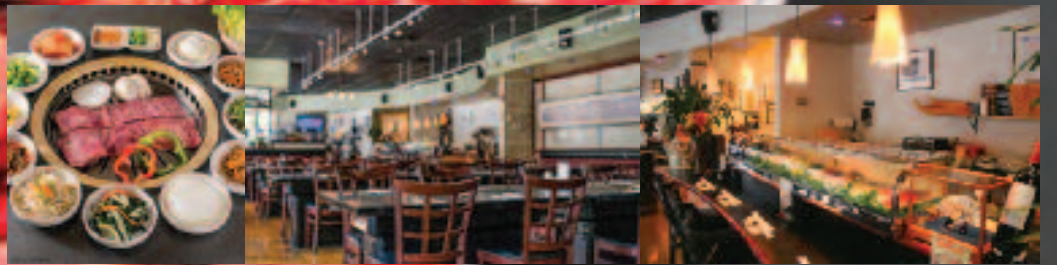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다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이 총리 "이 시대엔 대통령에 바른 말 하는 총리 필요"

취임 첫날 지상파 3사 연쇄 인터뷰 "국민 눈높이 맞는 국정 수행"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17일 "대통령에게 바른 말, 쓴 소리, 옳은 소리를 하는 총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취임 첫날인 이날 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책임총리' 구현 등에 대한 질문에 "쓴 소리,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총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특히 "총리가 법률과 헌법에 따라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 책임총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대통령에게 쓴 소리, 옳은 소리를 정확하고 가감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을 잘 보좌해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이른바 '방송 사외압' 의혹으로 인해 자신의 언론관이 국회 인사 청문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됐던데 대해선 "편한 자리에서 편한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됐다"며 "내 언론관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불찰은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내 나름대로의 철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선 배전의 노력을 해 우리나라의 언론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향후 대야(對野) 관계 설정에 관한 물음엔 "야당은 내가 (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매일 접촉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뭘 생각하는지 잘 안다"면서 "야당도 내 일시적인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을 이해해주길 기대하고, 그렇게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수시로 야당을 찾아가 (정책 등을) 설명하고, 야당이 중요한 국정 파트너인 인식 하에 협력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 총리는 이날 방송에 내년 4월 제20대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은 신념을 다 바쳐 총리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하

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자신이 지난달 23일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여론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급부상한데 대해선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ys4174@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FEB. 20TH - FEB. 26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and Pinterest!

BEST SELLERS

Biggest Sale

100% PREMIUM QUALITY
 JOIN NOW
 CELEBRATE THE START OF SPRING BY STOCKING UP ON SOME OF OUR **BEST SELLERS**.
 HURRY IT'S OUR **BIGGEST SALE** OF THE YEAR.

Welcome! PLEASE ENJOY!
 TOP BRANDS
 PREMIUM Quality PRODUCTS

<p>광천 녹차김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9.99 0.7oz. x 10ea./box BEST SELLERS</p>	<p>SQUID 냉동 오징어 \$1.99 lb. BEST SELLERS</p>
<p>U.S.D.A. CHOICE BEEF HEEL MEAT 사태 \$7.99 lb. BEST SELLERS</p>	<p>KOIMO SWEET POTATO 큰이모 고구아 \$1.49 lb. BEST SELLERS</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99 15 lbs. BEST SELLERS</p>	<p>TONGTONGBAY FISH TOFU 통통배우 두부 2\$3.99 ea./for BEST SELLERS</p>

NEW HAIOREUM PRODUCT LAUNCH!
TURN UP THE HEAT!
 Now dumplings get spicier than ever.

화끈하게 맛있는
 해오름 불닭만두 출시!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의 웰빙 반찬들을 맛보세요.

H MART TOYOTA | Let's Go Places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MASSACHUSETTS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il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April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1st PRIZ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83 WINNERS!**

- 1st Prize: TOYOTA RAV 4 XLE - \$25,000+ value (1 winner)
- 2nd Prize: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 3rd Prize: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 4th Prize: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 5th Prize: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 6th Prize: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5 coffee tickets.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y, and friends are ineligible. Sweepstakes ends 4/9/15 at 11:59pm EST. See www.hmart.com for more detail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p>FRI./SAT./SUN ONLY 20 / 21 / 22 ONLY</p> <p>Singo Pear 신고배 3cnt/pkg. \$8.99</p>	<p>FRI./SAT./SUN ONLY 20 / 21 / 22 ONLY</p> <p>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12.99</p>	<p>FRI./SAT./SUN ONLY 20 / 21 / 22 ONLY</p> <p>Ginger 생강 lb. \$1.99</p>	<p>FRI./SAT./SUN/ MON ONLY 20 / 21 / 22 / 23 ONLY</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p>	<p>FROZEN</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7.99</p>	<p>FROZEN</p> <p>Beef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lb. \$1.49</p>
<p>FRESH</p> <p>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FRESH</p> <p>양념 발집 등심 스테이크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lb. \$6.99</p>	<p>FRI./SAT./SUN ONLY 20 / 21 / 22 ONLY</p> <p>FRESH</p> <p>Shad Fish 준치 lb. \$1.99</p>	<p>FROZEN</p> <p>Beltfish 통갈치 700-1000's/lb. \$2.99</p>	<p>FROZEN</p>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7oz./pkg. \$5.99</p>	<p>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oz. x 12ea./pkg. 주말시식권 9/16/15 SAMPLING EVENT \$9.99</p>	<p>NONGSHIM Hot & Spicy Bowl Noodle Soup 농심 육개장 사발면 3.03oz. x 12ea./pkg. 주말시식권 9/16/15 SAMPLING EVENT \$9.99</p>	<p>창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CHUNG JUNGONE Red Pepper Paste 6.6lbs. \$12.99</p>	<p>KTOWN Bibimbap/Japchae 케이터운 비빔밥/잡채 9.87 - 10.86oz. 주말시식권 9/16/15 SAMPLING EVENT \$3.99</p>	<p>TONGTONGBAY Premium Imitation Crab Stick 통통배 프리미엄 게맛살 1.1 lbs. NEW \$3.99</p>	<p>HAIOREUM Frying/Pancake Mix 해오름 튀김/부침가루 2 lbs. \$1.99</p>
<p>HAIOREUM Steamed Buns 해오름 호빵 All Flavors/9oz. ea./for 2\$3</p>	<p>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14.81oz. \$2.99</p>	<p>MAZOLA Cooking Oil 마졸라 식용유 All Varieties/128fl.oz. \$8.99</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4.99</p>	<p>KOMAX Plastic Roll Bag 코맥스 위생 롤백 35cm x 50cm/150cnt/pkg. \$4.99</p>	<p>HELLO HOME Noodle Cooker 헬로홈 멀티 전기주전자 F-732/1.5L/ea. \$19.99</p>

이완구 총리 인준 후폭풍, 새누리 지지율 하락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접

새누리 34.7%, 새정치연 33.8%로 사상 최저 0.9%p 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 문재인 독주 속 박원순, 김무성, 안철수 순

(서울=뉴스1) 윤대형 기자 = 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표결의 후폭풍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주일 전 대비 2.6%p 하락한 34.7%를 기록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2.0%p 상승한 33.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격차는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최저 수준인 0.9%p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했다.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됐고, 17일에는 이 총리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박

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 후보자의 국회인준안이 통과된 점이 여당에게는 '역풍'으로 야당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11일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이 포함된 2월 둘째 주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5.1%p 급등한 31.8%를 기록한 데 이어 셋째 주에는 2%p 상승한 33.8%로 집계됐다. 2주 동안 7.1%p 오른 셈이다.

리얼미터는 "(지난 8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효과도 있었지만,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총리 지명 후폭풍으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인 서울(34.1%→44.0%)과 경기·인천(28.2%→33.4%), 20대(33.6%→39.2%)와 40대(37.1%→40.8%), 가정주부(20.8%→36.9%)와 노동직(25.7%→33.6%)에서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46.9%→37.0%)과 광주·전라

(12.7%→8.8%)에서 하락폭이 컸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28.0%→10.4%)와 40대(26.7%→24.3%),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성향(29.4%→24.9%)에서 크게 줄었다.

여론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CATI 16.3%, ARS 7.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차기 대선 지지도, 문재인 27.5% > 박원순 11.2% > 김무성 > 안철수 순
여야 차기대선 지지도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6주 연속 상승과 7주 연속 선두를 이어갔다. 문대표는 전주 대비 2.3%p 상승한 27.5%로, 1월 1주차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1.7%p 내린 11.2%로 2주 연속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문대표와의 격차는 전주 대비 4.0%p 더 벌어진 16.3%p를 기록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9.0%,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8.2%,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6.1%,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6.0%, 이완구 국무총리 5.7%, 안희정 충남지사 4.6%, 홍준표 경남지사 4.1%, 남경필 경기지사 2.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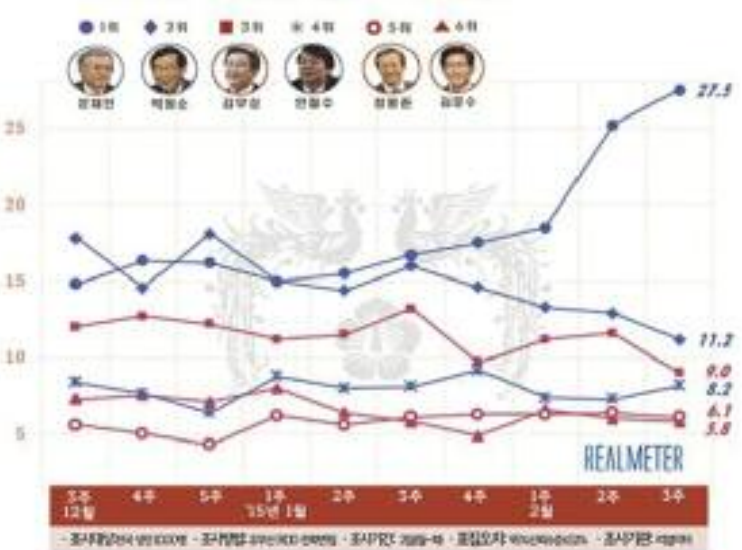
여권 주자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김무성 대표 13.6%, 김문수 위원장 9.1%, 이완구 후보자 8.1%, 정몽준 전 대표 6.5%, 홍준표 지사 5.0%, 유승민

정당 지지도: '15년 2월 3주차 (%)



정당별 지지율 추이 (2월3주차, 리얼미터)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 '15년 2월 3주차 (%)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 (2월3주차, 리얼미터)

새누리당 원내대표 4.6%, 남경필 지사 3.4%, 원희룡 지사 2.7%였다.

야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문재인 대표 28.3%, 박원순 시장 13.5%, 안철수 전 대표 10.3%, 안희정 지사 6.5%,

김부겸 전 새정치연합 의원 5.7%, 정동영 전 장관 2.6%, 정세균 새정치연합 고문 2.5%, 같은 당 김형환 의원 1.5%를 기록했다.

birakoca@news1.kr

인사 청문회 도입 후 두번째 낮은 득표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5년 만에 최저 찬성률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요건인 과반(141표)을 간신히 넘긴 148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128표, 무효는 5표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 가운데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52.7%로 지난 2000년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때 이후 두 차례의 부결을 제외하고는 최저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찬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소속 의원 130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한 1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155명이 투표에 참석한 새누리당에서도 최소한 7표의 반대 또는 무효 '이탈표'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1기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72.4%의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이명박(MB)정부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69.3%의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역시 MB 정부였던 지난 2009년 정운찬 전 국

국무총리	찬성	반대	무효	찬성률
이한동	272	137	0	72.4%
김종필	264	161	71	61.3%
김영삼	177	166	5	52.7%
김종대	278	174	34	61.4%
김종필	208	213	5	49.8%
김영삼	264	182	77	59.9%
김영삼	289	200	84	59.2%
김영삼	286	162	81	64.0%
김영삼	269	210	31	56.3%
김영삼	256	152	3	62.1%
김영삼	264	180	142	41.0%
김영삼	272	130	130	51.1%
김영삼	279	174	100	61.4%

무총리는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92.7%의 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이해찬·한명숙 총리 후보자도 모두 60% 후반대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석수 후보자는 84.3%의 높은 찬성률로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장대환 후보자는 각각 41.0%, 42.1%의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됐다.

청 "김기춘 사의 수용, 연휴 뒤 후임 발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辭意)를 수용했다. 이에 청와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지난 뒤 후임 비서실장 인선 결과를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추가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을 발표할 뒤 '청와대 인사'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비서실장의 거취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실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헌신해온 것을 여러 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실장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이던 지난 2013년 8월 허태열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어왔다.

윤 수석은 정무 등 대통령 특보(특별보좌관)단의 추가 인선에 대해서도 "그때(김 실장의 후임 인사 때)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중이던 해수부 장관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신임 통일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그리고 금융위원장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ys4174@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문재인, 첫 대결서 무난한 데뷔전...우윤근과 호흡 '척척'

당초 '본회의 보이콧' 등 강경 예상 관측 깨고 전략적 유연성 발휘

(서울=뉴스1) 김현, 진동영,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정치적 데뷔전이자 시험대였던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문 대표가 당무와 관련해 친노 인사를 배제한 '탕평 인사'를 앞세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긴 했지만, 원내 현안에 있어선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첫 원내 현안이었다.

물론 이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이끄는 문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해볼 수 있는 무대였다.

일단 정치권에선 문 대표가 대표 취임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 "총리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라는 일성을 내놓으며 당내 '부적합 여론'을 주도했던 데다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본회의 보이콧' 등 여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하는 강경책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할 경우, 이탈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표결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문 대표가 자신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참석 후 자유 투표'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기존 '강성' 이미지를 벗고 전략적 유연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당내 호평을 받고 있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에 속하는 한 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은 어차피 결론은 뻔했고, 우리가 대안을 정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느냐를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문 대표 입장에서 대표 취임 직후여서 혹시나 모를 이탈표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치적·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은 것 같다"고 평했다.

이같은 평가엔 문 대표와 대야(對與)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도 '무난한 호흡'도 중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문 대표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힘을 실어줬고, 우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내내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와 충청 지역 의원은 물론 당 중진과 상임고문과 잇달아 접촉을 갖는 등 소통 행보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6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입장을 밝히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16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다 맞다"면서 '본회의 자유표결'이라는 당론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단호하면서도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우 원내대표의 설득이 의원들에게 먹혔던 것이다.

문 대표는 주말 동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본회의 참석을 독려할 때 불참의사를 밝힌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지원사격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의 한 핵심당직자는 통화에서 "

문 대표가 든든히 뒷받침을 해주고, 원내 지도부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번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적 열세로 국민 뜻을 관철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총리 후보자를 끝내 인준하고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이

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투표 결과에 대해선 "우리 당은 이 후보자의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출산한 지 5일밖에 안된 장하나 의원과 시모상으로 오늘 발인한 진선미 의원까지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면서 확실한 단결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문 대표가 원내지도부 등과 사전 협의없이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gayunlove@news1.kr

'제국의 위안부' 출판 금지 가처분 인용...법원 "피해자 명예훼손"

나눔의 집 "법원 결정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 환영 세종대 박유하 교수 "문제된 문구 삭제할 생각 없다...이의신청 낼 것"

(서울=뉴스1) 권혜정, 정재민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에 대한 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고충정)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 등이 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출판되는 '제국의 위안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에 대한 협력자' 등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직접적 폭력, 납치 등으로 인해 10대 중 후반의 나이에 강제로 연행됐다"며 "일본군 위안부들은 군부대 등 위안소에 끌려와야 비로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은 위안소를 설치·운영·통제했고 식민체제 아래에서 헌병·경찰과 연계를 통해 수만명의 위안부를 동원했다"며 "이들이 이처럼 수송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엔인권소위원회 보고서나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 등의 담화 등을 통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인정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은 일본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본군과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 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 없는 '피해자'로서의 본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동원

돼 애국한 존재로서 일본군에 대해 협력자 혹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 "이같은 표현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가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살펴보다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 도서가 계속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는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54)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소장은 "박유하 교수의 책은 역사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결정문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책을 폐기처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매춘부, 동지 등 할머니들에게 민감

한 단어들을 삭제하라는 이번 결정은 책을 팔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문은 한국 사회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유하 교수는 법원 결정에 "예견하지 못한 결과라 많이 실망했고 이의신청을 내겠다"며 "문제가 된 문구들을 삭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실제로는 나눔의 집 소장 고 문번호사가 일으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조를 맞춘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결국 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법원의 결정문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거친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은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이 오랜기간 동안 자리잡아온 결과"라며 "책에는 없음에도 원고 측이 멋대로 요약한 이야기를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정리해 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분명히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jung9079@news1.kr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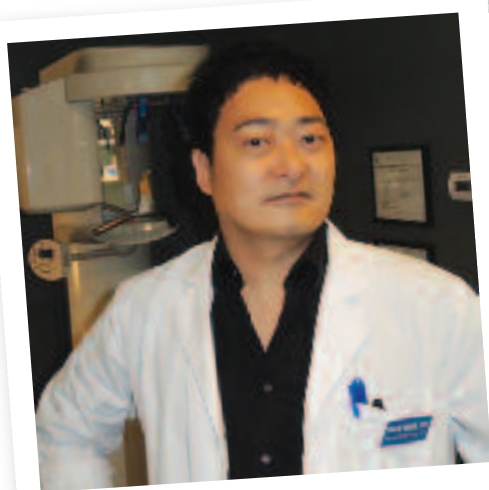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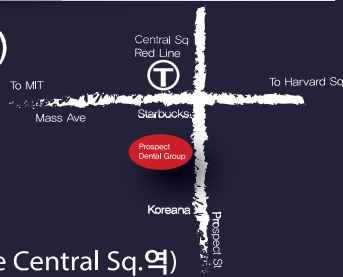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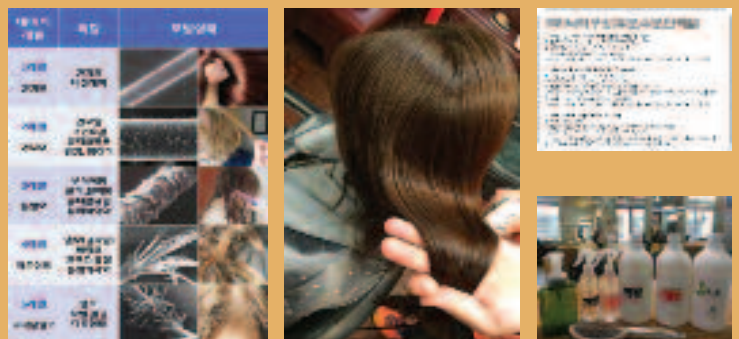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대법원 '댓글판사' 사표수리...또 '제 진영 감싸기'

"사생활 영역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
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해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댓글 논란의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통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댓글을 단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2월16일자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사표수리 배경을 밝혔다. 다만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9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11일 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노동조합 등에 대해 '춧볼폭도', '투신의 제왕', '저능아', '도끼로 xxx를 쪼개버려야 한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세월호 희

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17일까지 연가를 낸 상태였다. 수원지법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하다. lennon@news1.kr



댓글 판사, 영장전담 민감한 정치사건 맡아

포털사이트에서 기사·게시글 등에
악성 댓글 달아오며 업무

(서울=뉴스1) 구교은 기자 = 사회 이슈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에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논란을 빚고 있는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45)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 이상호·홍순석 씨 등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모바일메신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우제창 당시 민주당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08년 춧볼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노동조합 등에 대해 '춧볼폭도', '투신의 제왕', '저능아', '도끼로 xxx를 쪼개버려야 한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야당 성향 사람은 기사 제목만 보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없었던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다" 등 댓글을 남겼다.

최근 논란이 됐던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선 "정윤희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와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kukoo@news1.kr

이정렬 전 판사, 댓글 판사 고소 서초경찰서 수사착수

"가카새끼 짬뽕" vs "페이스북
치워 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46)가 '막말 댓글'로 논란이 된 이모 전 부장판사를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고소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판사간에 벌어진 일이라 법원이 가까운 서초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막말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 부장판사를 경찰청 사 이버안전국에 고소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땃땃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모욕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그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를 공개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 거부로 변호사사 무실 개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이모 전 부장판사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징계 기사에 "페이스북 치워 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jung9079@news1.kr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그 분의 저에 대한 범죄행위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저도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땃땃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감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 부조리 부도덕에는 눈물 같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게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일보를 비롯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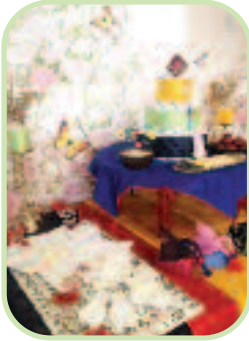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전원
무료
입장

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45분



LUNAR NEW YEAR CELEBRATION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각종 활동, 전시회, 그리고 문화공연 등을 통해 하루 종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org/lunar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헌류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디, 한지외무침과 매운탕까지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크리시 셀몬, 허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폭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일스런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y Parish of Korea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양: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티비(N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김형주 칼럼



김형주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플래그십 프로그램, 공공정책학(Master of Public Policy) 과정에 수석중. 한국에서 방송기자로 9년. 잠시 유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공보관으로 근무. 언론과 정치, 경제 영역의 접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찾고자 연구중

언론의 자유 카토(Cato)를 찾아서

언론 자유의 성서로 불리우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의 기본 이념은, 18세기 영국의 무명 신문기자 '카토(Cato)'에게서 비롯한다. 17세기, 18세기 영국 런던의 카페에서는 정치뉴스를 섞어 넣은 전단지들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하는데, 대중들 사이에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론이란걸 형성하기 시작한다. 근대 신문의 시작이었다. 신문의 파괴력에 화들짝 놀란 대영제국 정부는 기자들을 탄압하고 나선다. 영국 정부는 "기사가 진실에 가까울수록 정부에 미치는 해가 더 크다"라며, 정부기사를 실는 신문들에게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시작한다. 이에 런던의 두 명의 기자들이 실명 대신 '카토(Cato)'라는 필명을 사용해 '영국 정부가 부당하게 적용되는 명예훼손죄를 철폐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연재하며 대항한다.

그런데, 카토의 정신은 영국 본토보다는 대서양 건너 식민지, 미국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중 한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카토'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승계한 첫 미국 언론인이었다. 프랭클린의 동업자 존 피터 젠어가 영국에서 파견한 뉴욕총독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에 나선 프랭클린은 '카토'가 내세운 논리를 본따 "국민들은 정권의 비리를 밝히고, 이에 반대할 천부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펴 배심원들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낸다. 프랭클린의 승소와 그가 내세운 언론자유에 대한 논리는 대영제국의 압제에 이를 갈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어 프랭클린의 동료들이던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미쳐 토마스

패인과 사무엘 아담스는 아예 헌법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프랭클린을 거쳐 수정헌법 1조에 이어진 '카토'의 정신은 현대 언론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71년 뉴욕타임스가 미 정부의 전쟁범죄 연루 증거를 담은 펜타곤 리포트의 특종 보도했을 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보도내용이 국익에 반하고 국가기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수정헌법 1조의 정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카토'가 설파하려 했던 언론자유 이념을 강조하며 뉴욕타임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언론은 통치를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연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도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올해 60위를 기록했다. 2006년 31위였는데, 비슷

한 속성의 정부가 통치하는 동안 29계단이 나 하락하게 된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언론 외적 요인을 떠나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과연 지금 한국의 언론에 '카토'는 있는가라는 점이다. "기사는 사실로 말할 뿐"이라며 단순 사실 전달 자체만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착각하는 대다수의 기자들에게, 언론 학자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은 그게 아니라며 일깨운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있다. 국민들에게 권력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주된 역할이다." 펜대를 더욱 날카롭게 갈아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카토'가 설파하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며 기자정신이다.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가 해야 할 어려운 결정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챔피언에게 한가한 오프시즌이란 있을 수 없다. 패트리어츠가 지난 시즌 누렸던 수퍼볼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오프시즌 동안 로스터를 재정비하여 계속해서 우승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NFL의 2015년 리그가 시작할 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패트리어츠는 2015년 샬러리캡에 부담이 되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선수들과의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패트리어츠가 수퍼볼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그 선수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패트리어츠가 한 달 내에 결정해야 하는 주요 선수들의 계약을 살펴보자.

샬러리캡 - 빈스 윌포크와 제라드 메이오

빈스 윌포크는 샬러리캡에 반영되는 내년도 연봉이 \$8,933,333으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오프시즌 동안 윌포크를 팀에서 내보내면 \$8,066,665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태클의 선수층이 약하고 윌포크만큼 실

력 있는 선수를 찾기도 어렵다. 샬러리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윌포크를 방출하기에는 패트리어츠가 안아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

윌포크뿐만 아니라 패트리어츠는 제라드 메이오의 연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메이오의 2015년 연봉은 1,060만 달러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으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한 메이오를 패트리어츠가 내보내면 샬러리캡에서 460만 달러의 여유가 생긴다.

윌포크와 메이오, 두 선수를 모두 내보내면 패트리어츠는 샬러리캡에서 1,260만 달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팀의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두 선수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패트리어츠는 오프시즌 동안 윌포크와 메이오로부터 연봉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프리 에이전트 - 데빈 맥커티와 대럴 레비스

패트리어츠가 오는 3월 10일까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데빈 맥커티는 프리 에이전트 신분이 된다. 3월 10일 이후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패트리어츠는 맥커티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맥커티는 1년 더 패



윌포크와 메이오는 패트리어츠 수비에서 핵심적인 선수들이지만 내년 연봉이 샬러리캡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되고 패트리어츠는 95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대럴 레비스의 경우는 맥커티와 상황이 다르다. 레비스를 계속 보유하게 되면, 패트리어츠는 3월 10일에 레비스에게 옵션에 대한 보너스로 1,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2015년 계약이 연장되며 내년 연봉은 2,5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레비스는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패트리어츠 역시 레비스의 가치를 알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리어츠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레비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여 연평균 연봉을 낮추는 것이다.

레비스가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풀릴 경우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연평균 몸값이 1,600만 달러로 예상된다. 패트리어츠가 내년에 지급해야 할 2,500만 달러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이미 제츠와 빌스 등 복수의 팀들이 레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패트리어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74

편안함의 함정

이 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는 아리송하지만 일단 '질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골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즐기는 것이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좋은 에너지를 재충전을 받는 것이다. 골프에 있어서 즐기는 것은 좋는데 만약 질서 없이, 즉 골프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티켓 없이 골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골프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리 많은 에티켓들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의 골프에 크게 거스림만 없으면 웬만한 것은 눈감아 준다. 하지만 고수로 갈수록 행동 하나하나에 그 무게가 더해진다. 잘 하면 잘 할수록 요구되는 에티켓은 정도가 많아지고 적용되는 룰도 더욱더 까다롭게 적용되어진다. 프로 경기에서는 보통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티테일 한 것까지도 별타가 부여되기도 한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you

have a natural swing' 이다. '너의 스윙은 자연스럽다' 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윙은 그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휘둘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서가 없으면 그저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찌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스윙은 아주 철저히 질서를 가지고 몸에 익힌 데서 나온다고 해야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면에는 매우 통제된 절제와 훈련이 그 이면 어딘가에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와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된다. 쉽게 가는 길은 없다. 반드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제대도 된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는데 가장

첫걸음이 무엇일까? 많이 보고 많이 흉내내는 것이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흉내내라. 쉬워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대중님 어갈 수 있는 편법적인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된 것을 많이 보고 올바르게 된 것을 많이 따라하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비단골프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나, 심지어 직장에서의 동료들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나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언행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자연스럽게 나온 언행인지 혹은 억지로 지어낸 것인지 우리들은 대부분 쉽게 안다. 자연스러운 것이 의미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쉽게 들어오는 이미지는 편안함이다. 마음으로부터 부담감이 없어야 한다. 안락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함이 느껴진다. 죽은 것 같지 않고 살아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참 많은 좋은 말로 표현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 꼭 빼놓지 말고 단서를 넣어야 하는 것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정밀	120만원 → 91만원	136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9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small>*부가가치세별도</small>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small>*부가가치세별도</small>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원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최우수 부동산 회사 (NAR) / 2014년 최우수 부동산 회사 (NAR) / 2014년 최우수 부동산 회사 (NAR)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5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Peabody, MA Full liquor license 150 seats, 55+ parking spaces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50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800K+ Beer&Wine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Coin Laundry  \$94,9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5,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600K+ Beer&Wine License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우스터 병원 건물 매매 \$1,000,000 6200 sf. 주차장 포함 UMASS 병원 근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즈네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혼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플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소론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8 February 20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뉴베리스트리트의퓨전일식

이타다키(Itadaki)

업소탐방 275

이타다키(Itadaki)

269 Newbury St, Boston, MA 02116
617-267-0840
itadakiboston.com

연타미 TV가 100% 플레이로 새버전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하러 언제든 연락주세요.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
보스톤지역 TV 시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이타다카마쓰(잘 먹겠습니다)” 의 그 이타다카가 맞는지 물었다. ‘이타다키’ 에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산의 정상’ 과 ‘이기다’ 라는 뜻도 있단다. 뉴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퓨전일식 레스토랑인 ‘이타다키(Itadaki)’ 는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일본적인 레스토랑이다.

문을 닫은 후에도 바는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 이타다키의 인기메뉴로 쇼유라멘과 치킨 가라아게, 오리지날 연어 스키피자, 치즈 그라탕을 선보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메뉴는 오리지날 연어 스키피자로 바삭하고 고소한 밥 튀김 위에 연어 회가 큼직하게 올라간 요리다. 연어 알과 과일 사이드가 곁들여진다. 가격은 \$14이다.

시작되는 레이디스 나잇(Ladies Night)에는 여성 손님들이 해피 아워와 동일한 가격으로 에피타이저를 즐길 수 있다.

이타다키의 겨울철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며, 금요일은 밤 10시 30분까지 연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브런치를 제공하며 클로징 시간은 토요일 밤 10시 30분, 일요일 9시 30분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동양스러우면서도 깔끔한 테이블 세팅과 장식, 벽에 걸려있는 각종 일본 일러스트 등의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다. 이타다키의 매니저와 셰프도 일본 억양이 깊이 베인 영어를 쓰며 문장마다 “아노(저기)…” , “소오(그렇구나)” 가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쇼유 라멘(\$13)은 매일 아침 끓이는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일본식 면과 돼지고기, 시금치, 곤약, 김과 어묵 등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채식주의 손님들을 위한 야채라멘이 지난주 처음 메뉴에 올랐다. 야채 육수를 우려 시금치 면을 뽑아 만든 라멘으로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이타다키 해피 아워(Happy Hour)로 이 시간대에는 다양한 에피타이저가 \$5 이하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요리도 마찬가지다. “정통 일식의 맛을 간직해 가장 일본스러운 맛을 내고 싶다” 는 매니저 다린(Dalin) 씨는 “맛깔스러운 퓨전 메뉴도 많지만 스시나 라멘, 우동, 돈부리 등의 메뉴는 최대한 일본 정통의 맛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고 전한다.

같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일본식 닭튀김인 치킨 가라아게는 사케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안주감으로 제격이다. 가격은 \$9. 너무 느끼하지고 얇은 이타다키 시그니처 치즈 그라탕은 이타다키의 인기 에피타이저 중 하나다. 치킨, 새우, 랍스터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면 기본 메뉴는 \$14이다.

한편, 다린 씨는 이타다키가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사케를 보유하는 이자카야(안주를 겸한 일본식 술집)라고 자부한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케가 바에 나열되어 있으며 주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웅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정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네)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대인)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인트앤서니	508-826-5270
이탈리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창조원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8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엘머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머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플워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원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욱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루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	--------------

사바로	617-964-8044
사바로스시바베규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설령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야수	617-738-2244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피푸드카페	617-983-5177
청기와 레스토랑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978-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미태석품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세탁소판매, 스프링필드 근방
공장과 Drop, 연매상 \$700,000
T. 413-244-8347

B라인 뽕곡,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51

N[매매]
Coin Laundry용
Hot Water Heater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파실분은 연락주세요
T. 773-706-3291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뽕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지압사구인]
플로리다 지역 잭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 45세 미만
T. 770-712-3973

N[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
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
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N[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코넬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김창완 “〈닥터〉 출연은 실수였다”

상업주의에 실망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김창완이 영화 ‘닥터’ 출연에 대해 “실수였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김창완은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석희가 김창완이 ‘닥터’에서 악역을 맡은 것을 언급하자 김창완은 “진짜 그건 실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완은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바로 접어뒀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1~2년 묵히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이렇게 5분보고 던져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다시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심리를 알아보자. 그래서 진짜 하겠다고 한 거다. 오로지 그 이유다”라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그래서 감독의 심리를 알아냈나”고 묻자 김창완



은 “알았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더라.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관객으로부터) 돈을 뺏어 오려고 그러는... 오로지 그 생각 밖에”라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말하면 같이 작업했던 분들에게 결례 아닌가”라고 말하자 김창완은 “

아니,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구나. 아, 이게 소위 상업주의라는 거구나. 그 생각을 배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khe45678@news1.kr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日 매체 "신분 격차가 장애물?"

했다.

또 “한국에서는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가 일본보다 낮다. 서울의 일반가정에서 태어나 연예인이라 직업 선택한 '윤사마' 자신이 이 격차 문제와 계속 싸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본 매체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에 대해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여성잡지 조세이세븐은 배용준과 구소희의 관계에서 “연예인과 재벌가 손녀라는 신분 격차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이세븐 측은 이어 익명의 한국인 한 매체 기자 발언을 인용해 “구소희의 가문처럼 역사가 있는 유명 재벌계 인사 중에는 아직 연예인을 아래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특히 친족 중에는 교제에 반대하는 이도 있다”고 전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이게 진짜인가”,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진짜라면 안타깝네”,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정말 신분 차이?”, “배용준 구소희와 결별, 추측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배용준과 구소희의 열애는 지난 2013년 12월 알려졌다. 당시 일본 매체가 먼저 배용준의 열애를 보도했으며, 이후 배용준 측은 구소희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aluem_chang@news1.kr

최지우 '꽃보다 할배' 합류, 이서진도 다소곳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최지우 '꽃보다 할배' 합류에 이서진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이 포착됐다.

tvN '꽃보다 할배' 팀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리스로 출국했다. 기존 멤버인 H4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짐꾼 이서진을 비롯해 최지우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이와 함께 16일 '꽃보다 할배' 폐

이스북에 공개된 사진 속에는 그리스 여행을 떠나기 전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최지우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여행을 준비했고, 이서진은 최지우의 등장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꽃보다 할배' 제작진은 "'삼시세끼'에 출연했을 당시 최지우가 이순재 선생님과 어우러지는 분위기도 좋았고 이서진과의 호흡이 좋아 제작진에서 출연을 권유했다"면서 "

흔쾌히 촬영에 임해줘서 함께 여행 길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우 꽃보다 할배 합류에 누리꾼들은 "최지우 꽃보다 할배, 이서진 표정 너무 웃겨", "최지우 꽃보다 할배, 이서진 너무 좋아하네", "최지우 꽃보다 할배, 분위기가 달라지네", "최지우 꽃보다 할배, 이게 최지우 효과"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박명수 아내 한수민, 88억 빌딩 매입

전문가 수준 부동산 투자

다.

이 빌딩은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의 빌딩으로 주변에서는 '박명수 건물', '스타벅스 건물'로 유명했던 건물이다. 박명수 건물로 불렸지만 실제 소유주는 한 원장이었다.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개그맨 박명수 아내인 한수민 해바라기의원 원장이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인근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원장은 지난해 12월 방배동에 주차장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730㎡(222평)와 건물 283㎡(86평)을 88억 원에 매입했다. 한 원장은 2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또한 한 원장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인 지난 7월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빌딩을 46억6000만 원에 매각했

한 원장은 2011년 10월 이 빌딩을 29억 원에 매입한 후 전 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 3년 후에 46억 6000만 원에 매각해 3년 만에 17억 6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야 뭐 욕할 건 아니죠”, “공부도 잘 하는 사람이 투자도 잘 하네”, “박명수는 기부도 잘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e45678@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2월 9일 ~ 2월 15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같은 시간 속의 너 나얼
- 02 그냥(Just) Zion.T, Crush
- 03 사랑은 미친짓 15&
- 04 또 운다 또 다비치
- 05 화 매드클라운
- 06 목소리 노을
- 07 위아래 EXID
- 08 미쳐 4minute
- 09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정승환
- 10 팔배개 소유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40.4%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8.2%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7.7%

- 4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21.9%
- 5 KBS1 KBS9시뉴스 18.1%
- 6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7.2%
- 7 KBS2 해피선데이 15.7%
- 8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4.5%
- 9 KBS2 개그콘서트 14.4%
- 10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4.0%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1	2			4	9
5		7		3		1	
		9				5	
3		5	4	8			
	2			9			8
				7	3	9	5
	7					2	
	5			2		6	4
4	1				7	5	

2월 22일 - 2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토끼띠 | 새록새록 피어하는

●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가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에 꼭 잡아야 하겠습니까. ●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하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말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 운수: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90, 78, 66, 54, 42, 30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닭띠 | 꼼꼼히 확인해야

● 운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끼게 되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까. ●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를 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걸으려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4일 주의.

소띠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만 가지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용띠 | 신이 나서 일하게

●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바쁘고 힘들어도 신이 나서 일하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양띠 | 돈이 들어오게 되는

● 운수: 너무 완벽을 기하다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 애정: 가까이에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개띠 | 만족할만한 결과가

●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활을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들이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5일 길일. 22, 24일 주의.

범띠 |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 운수: 자기감정에 빠져있다가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별 애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뱀띠 | 막상 코앞에 닥치면

● 운수: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따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원숭이띠 | 물이 고여 있으면

●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을 들고도는 것이니 꼭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7일 길일. 22, 28일 주의.

돼지띠 | 내실을 기해야

●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먼저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에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8일 주의.

“허위사실 유포, 합의 없이 법적 조치”

EXID 하니 소속사 공식 입장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걸그룹 EXID 소속사 웰메이드에당 측이 하니와 관련된 악성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7일 EXID의 소속사 웰메이드에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게시물로 웰메이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따라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상에는 하니의 개인 사생활과 멤버간 불화설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짜라시가 급속히 퍼졌다. 이와 관련해 17일 웰메이드에당 측 관계자는 한 매체에 "하니가 언급된 짜라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함께 언급된 분은 하니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웰메이드에당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웰메이드입니다. 당사는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게시물로 웰

메이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합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따라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ho0901@news1.kr



EXID 솔지, 벌써 10년차 가수

2006년 2인조 〈투앤비〉로 데뷔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복면가왕'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EXID 솔지가 데뷔 10년차 가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솔지가 소속된 EXID는 2012년에 데뷔했지만 사실 솔지는 2006년 싱글 앨범 '첫 번째 향기'를 발매하며 데뷔한 2인조 발라드 보컬 그룹 투앤비로 가요계에 먼저 첫발을 내디뎠다.

투앤비는 허솔지와 김송이로 구성됐으며, 2006년 데뷔 후 2007년 1집 앨범 '눈시울'을 발표하고 2012년 싱글 '어떻게 사니'를 발매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솔지는 18일 방송된 MBC 설특집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에서 최종우승을 차지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솔지는 예일리의 '손대지마',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등을



선곡해 뛰어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인지도와 경력 등 기존의 평가와 관련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형태의 이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입증했다.

khe45678@

이진아 자작곡 〈남남남〉 음원 차트 석권

(서울=뉴스1) 온라인팀 = 'K팝스타4' 이진아가 선보인 자작곡 '남남남'이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이날 이진아는 자작곡 '남남남'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진아는 무대에 앞서 "이별하고 난 뒤 슬픈 감정을 남남남 먹어버리고 싶다는 뜻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진아는 키보드 연주를 통해 경쾌한 멜로디를 선보이고 개성 넘치는 가사를 들려줘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남남남'은 16일 오전 온라인 음원사이트 네이버뮤직과 다음뮤직에서 실시간 차트 1위, 벅스와 올레뮤직 실시간 차트 2위, 멜론 실시간 차트 6

위 등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진아의 무대를 본 박진영은 "이런 게 어딨나. 이게 오디션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음악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정도다"라며 "나는 흑인 '바하'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잘 하면 심사할 수 없다. 반칙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희열 역시 "바하가 쓰던 기법 중 하나를 노래하며 한다는 건 숫자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거다"라며 "이 곡을 치열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쉽게 들려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심사평을 남겼다.

khe45678@news1.kr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 이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 15일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지의 인터뷰 사진 및 공방패션 사진 등을 게재,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

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패소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곧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보스톤 한인 야구리그 2015 신입선수 모집!

The 2015 BKBL Draft is set for Saturday, February 28th
Beginners to Advance level Welcome to tryout~



일시 :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BL.inf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굵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자신만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부부가 되었던 부모 자식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간에 말이다. 설령,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선불리 건드렸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아내가 시댁에 대한 얘기나 남편이 친정에 대한 얘기가 오가다 보면 심사가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그쯤에서 멈추면 좋으려면 더도 들도 아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폭발 직전이 되는 것이다. 결혼 초에는 서로 달콤한 사랑의 이름으로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일이지만, 결혼 생활 10여 년을 지날 때쯤에는 심사가 조금씩 뒤틀리게 마련인 것이다.

3월이면 결혼 26주년을 맞는다. 내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친정 가족 없이 홀로인 내게 시아버님 형제·자매와 시어머님 형제·자매를 합하면 족히 40여 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다. 그러니 그 어떤 이유를 들거나 까닭을 들추지 않더라도 저절로 물리적인 압박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심리적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집살이'가 될 것

이고, 더 나아가 관계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화병'이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참 잘 견뎌왔다.

이제쯤에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비켜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적당히 내 의사 전달을 하면서 선불리 굵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지혜란, 경험과 이해의 바탕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던가. 결혼 20여 년이 되도록 살면서 지금까지 티격태격 한다면 그 누구의 탓이 아닌 자신을 잠시 돌아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부부 사이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게다. 그 어떠한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부부간에도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싸움은 시작이 된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듭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서로 지지

게 되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서로 보듬어 주며 살아도 부족할 사이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남겨준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일까.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일에서든 내 뜻이 아닌 남의 뜻으로 돌리기에 변화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너를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아니 나와 다른 너를 인정만 한다면 별 탈 없이 지나갈 일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틀렸다는 식의 이 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말이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원인인 이유이고 그에 따른 결과인 까닭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찌 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든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나 자신이 우선 편안해진다.

부부나 가족의 관계는 아무래도 객관적이 어렵고 주관적이기 쉽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더욱이 서로의 공간이 필요하고 거리의 간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상

대가 들려주는 만큼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간혹, 다른 친구의 삶에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선부른 참견을 시작하면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남의 부부간의 문제에 참견 아닌 참견을 시작한다면 참으로 무례한 것은 아닐까 싶다. 중년쯤에 있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여자들은 주로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며 마주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인생에서 나 자신의 삶도 때로는 추스리며 살기 힘든 때가 있다. 남은 인생길에서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삶이면 좋겠다. 어떤 관계에서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관계이면 좋겠다. 우리네 삶에서 어찌 보면 쉬워 보이거나 쉽지 않은 일이 관계라는 생각이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의 시작이 남이 아닌 바로 나이길 오늘도 바람해 본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 선부른 참견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쉬이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을 굳이 굵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삶의 지혜를 배우는 오늘이길 소망해 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오호희재嗚呼喜哉 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올해 설날은 늦다. 이제야 정월 초하루가 되었으니 말이다. 양력으로는 봄이 코앞인데, 산 처럼 쌓인 눈은 여전히 위풍당당하다. 봄기운은 놀리고, 움트려는 새싹은 움짱달싹할 수 없을 터. 설날 아침, 떡국은 드셨는지.

눈사태에 시달리는 당신. 늦어도 입춘대길

몇 년전이다. 아이가 한국학교에서 붓글씨를 배웠다. 학기가 끝날 때 작품을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을 나에게 보여줬고, 거실에 걸었다.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훈민정음체로 쓴 반듯한 글씨였다. 뜻이 깊어 철학 냄새가 가득했다. 다행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계몽성 표어체는 아니었다. 바로 그 즈음, 아이에게 소설가 황석영이 했

던 말을 우연히 말해줬었다. '살아 있음은 생생한 기쁨이다.' 아이가 이해하진 못하건 상관없이 그저 주절였던 거다.

몽테뉴는 살기 위해서 산다 했던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 자체의 구별이 모호하다. 현대, 분명한 건 인생을 살기 위해 산다면, 너무 건조하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이란 말처럼 말이다. 문장이 스산하고 썰렁한 게다. 인생은 살기 위해 사는 것과는 달리 봐야지 싶다. 그제 인생에 대한 예의이고, 창조주에 대한 겸손일 테니 말이다.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라 해야 한다. 삶을 치열하지만 즐겁게 살아내야 함이 마땅하다고 내가 부득부득 우긴다. 시詩 '인생' 은 별 다른 해설이 없어도 그냥 읽힌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다. 인생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

라. 오호희재嗚呼喜哉. 아아, 즐거운 인생.

어차피 살아야 할/인생이라면
눈물 같은 소주를 마시며/잠시 슬픔과 벗할
지언정
긴 한숨은/토하지 않기로 하자
아롱아롱 꽃잎 지고서도/참 의연한 모습의
저 나무들의 잎새들처럼 /푸른빛 마음으로
살기로 하자
세월은 /휘이휘이 잘도 흘러
저 잎새들도/머잖아 낙엽인 것을
(정연복, 인생)

봄이다. 우수雨水인데, 설날과 날이 같다. 우수라면 대동강 물은 이미 풀렸을 게다. 찰스강은 풀릴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 올해는 유난스레 겨울이 길다. 하지만, 겨우내 얼었던 아이의 성장판은 언 강물 녹듯 녹아 내릴터.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가며, 살아가는 게 생생한 기쁨이고, 사랑이란 걸 배워갔으면 한다. 푸른빛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인 게다. 어련할 테지만, 그래도 아버의 노파심이다. 설날 아침, 아버가 아들에게 주는 덕담인데, 잔소리와 구별은 모호하다. 오호희재嗚呼喜哉라. 즐거운 인생이여

풀린 푸른 강을 기다리는 당신. 복 많이 받으시라.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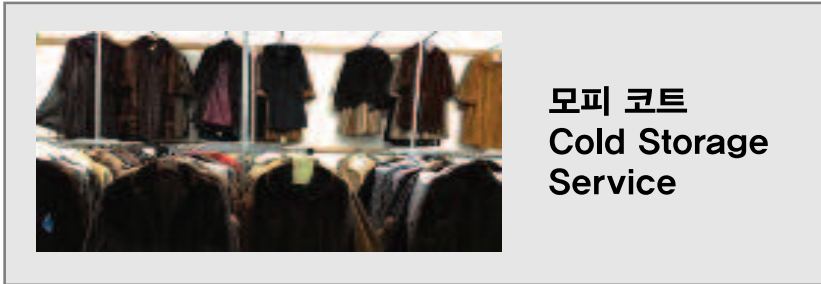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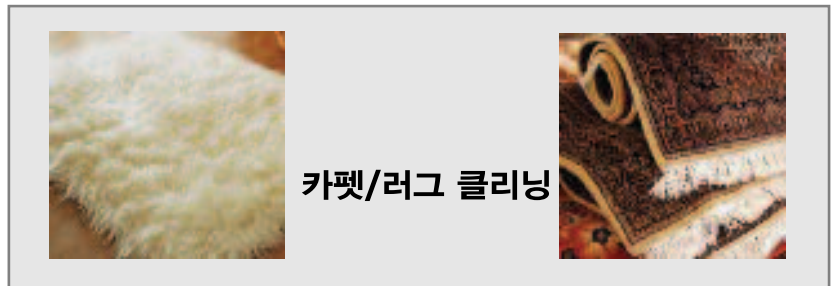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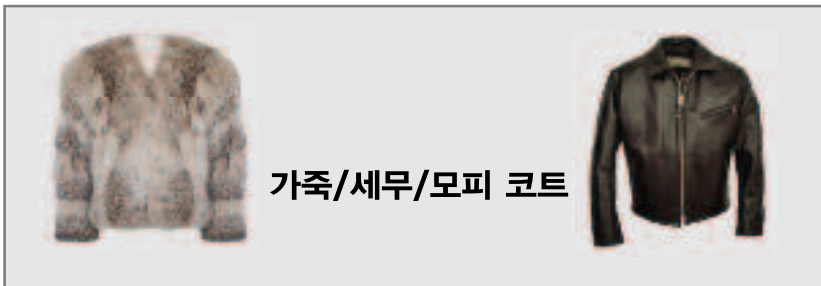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미동부 최대 규모의 가죽/카펫 전문 클리너 **SINCE 1999**

저희 I.L.C.C가 메사추세츠, 뉴햄프셔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시간내에 많은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기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I.L.C.C 는 15,000sq.ft. 규모와 그동안 세탁 경험을 토대로 다른 세탁업계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오래 동안 연구하여, 이제 새롭게 정의된 기술과 장비로 이 업계에 선두에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귀 업소의 가죽, 부츠, 카펫,세무,모피 코트, 카펫, 외딩가운 등의 모든 세탁과 Cold Storage를 믿고 맡기십시오. **좋은 Quality 와 신속한 Delivery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끝까지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결정의 그 순간...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 동반자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보다 좋은 서비스로,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JACKET \$20
 PANTS \$18
 COAT \$27
 UGG BOOTS(Reg) \$16 / (Large) \$18
 RUG(Reg) \$1/ sq.ft.

모든 종류 옷 수선 가능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393 S. Franklin St. Hempstead, NY 11550
 Tel: 516-292-5810, Fax: 516-292-5812
 E-mail: ilcccleaners@gmail.com

www.ilccny.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생학: 인종은 어떻게 개량되는가?!

“서울 중앙지법은 12일, 강제로 낙태 및 단종(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정당할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신체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 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시간 2015년 2월 12일 타전된 뉴스다. 이 뉴스를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나치 독일이나 미국의 우생학, 혹은 과학의 탈을 쓴 인종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전과’ 가 있는 줄 솔직히 몰랐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지난해에 이미 같은 사건의 피해자 19명이 소송결과 국가의 배상 판결을 입은 이후 두 번째 승소판결이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정관 수술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7년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소록도와 칠곡 애생원 등 국내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부부 및 동거인들을 대상으로 강제 정관 수술 혹은 강제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신경쓰지 않았겠지만, 한 집단의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길고오랜 폭력이 있었던 셈이다.

어떤 정부도 태어나야 할 국민과 그렇지 않

은 국민을 결정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 폭력이 여러 세월에 걸쳐 존재했다. 일반사람들의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 혹은 차별적 시선이 사실상 묵인했던 폭력일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우생학 프로그램도 그랬었다. “인류를 개선한다” 는 명목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훼손하는 폭력을 저질렀다. 1907년에서 1963년까지의 기간동안 미국 각주에서는 “신 박약이라는 이유로, 아이큐가 낮다는 이유로, 사회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약 64,000명이 비자발적인 불임화 시술 (Sterilization)을 받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한 법이 각종 우생학법이었다. 1920년대 팽배했던 반이민정서와 함께 우생학은 “미국사회에 적합치 않은” 이민자들의 “번식” 을 원천차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우생학 캠페인 포스터에는 “Some people are born to be a burden on the rest 어떤 이들은 날 때부터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 와 같은 문구들이 등장했다.

지금은 이렇듯 생소한 우생학 (Eugenics)은 인류의 유전적 특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어떻게? 선택 교배 (Selective Breeding)와 단종 (Sterilization)을 통해서!

전체 인류에서 우월한 사람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우생학을 처음 제안한 것은 19세기 후반, 다윈의 사촌이었던 프랜시스 갈튼 (Francis Galton)이다. 유전자 결정론자이자 영국 상류층 출신이었던 갈튼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유전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선택 번식을 통한 인류의 자체진화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생학의 아이디어가 미국에 건너왔던 20세기 초반 미국의 키워드는 혁신주의 (progressivism)였다. 19세기 후반의 정부가 거대 산업 자본들의 무한질주에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독점 문제를 방관했던 데에 대한 반응으로서, 많은 혁신주의자들은 정부가 직접,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 문제에 “개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즉, 20세기 혁신주의자들의 초점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식의 생물학적인 결정론은 논리적으로 혁신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놀랍게도 우생학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폭넓게 혁신주의자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가령 흑인의 지위향상을 주장하던 흑인 지도자 W.E.B DuBois 는 각 인종별로 가장 뛰어난 10% 가 모여서 인류 전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Talented Tenth” 를 이야기했고, 산아제한 운동의 마가렛 생어는 피임약

을 우생학 프로그램의 도구로 생각했다. 여러 ‘공익’ 재단들이 우생학 프로그램에 재원을 보냈고 대학들도 우생학 과목을 개설하곤 할 정도였다.

우생학은 아마도 육종학의 도메인을 인류로 확장한 버전에 해당할 게다. 농작물이나 가축 중에서 특정한 품종을 얻기 위해서 재배자 혹은 사육자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만을 골라서 번식시키는 육종학은, 아마 멘델이 유전법칙 이론을 제안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지식이다.

그러나 육종학의 자매버전인 우생학은 끔찍할 수 밖에 없다. 우월한 혹은 바람직한 유전적 형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배”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종 (즉, 불임)” 시킬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은 마땅히 태어나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제에는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재배자 혹은 사육자같은) 지배적 존재가 바라는 (desirous) 것과 바람직한 (desirable) 것을 혼동하는 오류도 스며들어 있다.

혁신주의의 시대에 우생학이 사회전반의 지지를 획득했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사회와 바람직한 사회를 혼동했다. 더 나아가 “날 때부터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될 존재” 를 임의로 결정할만큼 그렇게 오만했던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9 태권도와 김치는 우리 고유의 것인가?(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다.

이 노태우대통령의 한마디는 최홍희의 뇌리에 큰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이승만의 ‘격의格義’ 107)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면 가라데나 당수도 또는 공수도로는 되질 않고 ‘태권’ 이나 이와 비슷한 소리라야만 된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의식하였다. 왜냐하면, 당수도라는 이름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식세계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날조하거나 부인하면서 이대통령의 의식세계, 즉 그가 정형화하고 있는 인식세계의 격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최홍희였다. 그는 일본 유학 중 가라데를 배운것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의 무술경력은 자신에 의해서 날조된다. (김용옥의 ‘태권도 구성원리’ 에 의하면 그는12세에 위대한 독립투사가 되었고 한일동에게서 서도와 태권을 배운 도사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에 그는 이미 태권의 정통성을 승계한 무사로서 현해탄을 건너게 된다.) 최홍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무술을 이승만에게 인식시켜야만 했다. 야심 많은 그는 그가 일본에서 배운 가라데의 확산을 통하여 자신을 군내부

에서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최홍희는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오도관吾道館을 창설하였다) 그래서 이승만과의 뜻깊은 만남이 있는 후 고심 끝에 1955년4월11일 ‘태권跆拳道’ 이라는 두 글자를 창안하였다. 그가 배운 가라데가, 고금의 모든 무술이 그러하듯, 손과 발의 동작과 기술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기인하여 그 뜻을 내포하고 이승만의 ‘이해의 틀’ 에 박혀있는 ‘태권’ 이라는 음의 유사성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태권’ 또는 ‘택권’ 의 발음과 비슷한 무엇으로 즉, 당수도나 공수도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온 무술을 대체하고 제압해야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수도나 공수도는 모두 손기술을 뜻하는 무술이며, 사실 당시에는 손기술 위주의 무술이었다. 태권도는 1960대 부터 비약적으로 발기술 위주의 무술로 진화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태권도(또는 올림픽 태권도)는 거의 손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며 설령 사용하더라도 손 할지라도 득점의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06) 김용옥의 ‘태권도 구성원리’ (71쪽)에는 ‘1952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기전해, 한

국전쟁의 전화속에 국토가 휘말려 있던 어느 날...’ 이라고 기술되었다. 강원식과 이경명의 공저 ‘태권도 현대사’ 에는 1954년 5월로 기술되어 있다.

제1군단은 6.25발발 3일 후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창설되었고, 다른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군단 창설4주년 기념행사시였기에 1954년이 정확하다. 또한 제1군사령부에서 시범을 하였다는 문헌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기술된 것이다. 제1군야전군사령부는 1953년12월 15일에 인제군(관대리)에서 창설하여 이듬해 7월 원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1군단은 제1군야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제1군사령부 예하군단으로 있다가 1973년 7월1일 제3야전군에 제5군단과 제6군단과 함께 재배속되었다. 대구에서 창설된 제3야전군사령부는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제3야전군으로 재편성한 것이며 본부는 용인시에 있으며, 현재 제1군단은 경기도 고양에 있다.

107) 격의格義란 원래 불교용어인데, 김용옥은 이것을 ‘문명사의 이해의 틀’ 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그의 저서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을 알고 이민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다음은 알립니다:

- ✓ 2014년 11월 20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제도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사기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 ✓ 신청은 아직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근거하여 이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심하십시오 - 그러한 제의는 이민 사기일 수 있습니다.
 - 무료 및 저렴한 상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다리십시오
 - 2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DACA 신청 및 5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DAPA 신청
- ✓ 법적 조언을 구하시려면 유면허 변호사 또는 BIA가 인가한 대리인에게만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기 입국자에 대한 추방유예조치 또는 미국인 및 합법적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DAPA)의 적용 대상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617-635-4141번으로 보스톤 새터민 안내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신청은 아직 받지 않지만,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전화 617-635-4141번으로 보스톤 새터민 안내 라인 (New Bostonians Information Line)에 전화하십시오.

이러한 이민 관련 규정의 변경에 관한 안내 상담소의 목록을 원하시면, www.boston.gov/newbostonians로 당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yor's Office of
NEW BOSTONIANS

Martin J. Walsh, Mayor

시장 Martin J. Walsh와 보스톤 새터민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은 미디어 후원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Sponsored by:



بندوبت العالمة في العورى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차(差)

오늘 2월 19일은 2015 을미년(乙未年) 음력 설. 양(羊)띠 해가 시작됐다.

보스톤은 거의 매일 눈과 싸움, 드디어 학교도 방학에 들어갔다.

눈(雪)이 많이 온다는 것은 “하늘의 물(雨)이 사람의 욕심(欲)을 씻어내면 흰 색(白)”으로 바뀐다는 것.

보스톤엔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욕심쟁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일까? 눈으로 사람의 욕심이 씻길 수 있을까?

욕심은 서울의 야당국회의원들을 돌돌 뭉쳐왔다.

나라의 현실이 급박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그도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입법 활동하던 사람인데 임명동의안을 끝까지 끌고 나와 찬 148 대 반 128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다.

표의 결집력은 야당이 여당을 이겼다는 것. 새누리당은 155명 중 148명이 참여로 7명이 이탈했다.

본래 새누리당은 158명 중 구속 중인 송광호, 조현룡 두 의원과 이완구 피투표자 등 3명이 탈락한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소속(원래 새누리당인데 국회의장으로서 무소속)으로 참여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할 때 군자(君子)는 대의(大義)의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한다”고 이완구 총리를 반대한 것. 이 이재오 의원에 합세한 여당의원 7명이나 됐다.

반대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30명 재석의원 중 해외출장 중인 의원 등 6명이 불참, 124명이 반대 투표에 응했다.

투표에 응한 열성과 중엔 딸을 출산하고 5 일째 되는 날 반대투표에 응한 장하나 의원과 시어머니 시신이 발인하여 묻히러 가는 날 총리 반대투표를 위해 투표에 응한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 이완구 총리반대에 한 곡을 그었다.

이같은 야당의 극성은 전라도와 충청도 민심을 이간질 시키는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서 화살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조준 “문재인은 전라도와 충청도 민심을 이간질. 지역감정을 유발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권 주자로서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할 날만 남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자기, 야당 발등을 찍으려는 도끼를 못 본 것. 야당의 반대전략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이완구 총리는 새해 설날 취임 인사차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 “아무췌록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에 이 총리는 “작년에 북한 방문을 준비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연기했었는데 올해 방문하시면 행정절차를 잘해서 차질 없이 준비케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임지 중에 남북관계의 초석을 깔아주신 덕분에 그 후로 많이 발전됐는데 요즘 경직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 “대통령을 잘 보필해 통일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총리가 노력을 많이 해 주길 바란다. 예전에는 국력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전 대통령에게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한 기반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어 이완구 총리는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한 결과 “소신껏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총리는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 큰 금지와 책임이 같이 오는 것이다. 보좌하는 분들을 잘 보좌하고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 드리라”는 전(前) 총재의 권고에 귀를 세웠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오는 23일 종료된다. 2001년에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이후 2011년엔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으면서 마지막 잔고 100억 달러 계약이 마지막 끝내는 것.

금융 위기가 닥치면 이제 일본에 기대지 말고 한국 은행과 미국, 유럽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가동될 수 있게 중앙은행 차원의 통화외교 강화 속제가 이완구 신임총리가 당면한 숙제다.

差차: 舛也 = 相背 상배 어긋날 차. 이 글자는 “양양과 가공” 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뜻에서 출발한다.

1. 양은 순한 동물이어서 좋고 나쁜 것의 분간이 힘들다. 반대로 순종적인 근본을 이용인간의 속죄물로 쓰여왔다. 양을 하늘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主(주검)의 구원(八)”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제물’로 쓰인다. 바로 이 양이다. 2. 가공: 匠(匠)이란 뜻. 즉 하늘에서 내려온(1) 공장장(匠)이란 뜻. 匠장: ‘직공장’이란 뜻은 하늘의 상자(器)의 方者 기지방자를 타고 땅으로 내려온 斤근: 權十六兩 권십륙량.

이 16이란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할 까닭은 “1은 하나님, 6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한마디로 임마누엘(Immanue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 마태복음 1: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BC: 주전 700-680년에 기록된)에

서 예언됐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means God with us).” - 이사야 7:14

자신이 양이면서 임마누엘(工)이신 것을 증거하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위에 -은 하늘, 아래 -은 땅, 이 두 길 二를 연결하는 1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유일하고 명백한 선언”이다.

바로 이 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길(The Way)”은 없다는 것.

하여 오늘 19일 음력설을 지나 본격적인 ‘양의 해’가 시작됐다. 이 양이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차민(天國差民)이 되는 기회가 시작된다.

이 기회를 천하만민에게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罪)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그 흉악한 죄를 벗기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시민권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差를 차별(差別) 없이 내리는 2015년엔 與野(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 경중을 떠나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그 길은 딱 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이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in Me.” - 요한복음 14:1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의 해의 축복의 말씀이다. 올해에 무슨 일이 있어도 差를 믿으라는.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유리 0.4mm의 두께로 얇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제품문의 주문전화 **213.487.0125**
www.heraldemart.com
일 이 오세오~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을 주는 홈쇼핑



명품 공진단
精氣를 돈우고 氣와 血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

공진단은 사향, 녹용 등 최고의 약재를 엄선하고 동의보감 원 처방의 정통(正統) 정향(正香)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승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명품 공진단을 추천합니다!

공진단의 효능

- 1. 기력 증진
- 2. 면역력 강화
- 3. 노화 방지
- 4. 혈액 순환
- 5. 소화력 증진
- 6. 스트레스 완화

31% \$800 → \$550
37% \$1980 → \$1250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브라질산 명품
순도 100% 고품질, 항암치료, 헬리코박터 사멸!
현존하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자랑하는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란?
브라질에서도 마나스쿠에서 생성되는 깊은 정록색 액기스로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장인 기업에서 만들어진 화라상, 희소성 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Artepillin-C
강력한 항암작용 제제로 최근 일본 국립예방연구원 마쓰노데스야 박사에게 의해 최초로 발견된 물질로서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효과 및 기능
위암, 폐암, 위식도, 민성위암, 특효 알러지비염, 축농증, 인후염, 임종 질환 면역기능 강화(SOD 효소 다량 함유) 진통, 저혈, 전립선, 자궁경부 계통 질환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무좀,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지질, 강한 항암작용(Artepillin-C), 각종 종양 제거 당노, 간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천연항생제로 소문난 프로폴리스는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

21% \$100 → \$79

대한민국 원도의 청정바다가 증 증 **해림후코이단**

한국정부의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탄생한 '해림 후코이단' 미국상륙!

방사능 오염에 걱정없는 원도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림후코이단을 만나보세요

후코 플러스 세븐베리즈 (80ml x 30팩) \$249
프리미엄 후코아셀 (690ml) \$399
후코이단 에코 (50ml x 30팩) \$199

고품질 후코이단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7가지 베리가 배합된 제품

후코이단은 물론 또 다른 항암 물질 후 코산틴과 커큐민까지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에 미네랄을 넣어 그 기능을 더욱 배가 되어 맛 좋게한 제품입니다.

뉘아내는 올인원실팩!
연예인 청담금실팩!

10 in 1
팩 하나로~ 싹!

당겨주고, 채워주고!
피부 겉과 속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ALL KILL** 금실 리프팅팩

전속모델 연예서

한국 홈쇼핑 대박상품

20% \$99 → \$79

[에어 프라이어]
Air Fryer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강한 튀김기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맛있고,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건강하고,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맛있다.

40% \$315.95 → \$189.95



LG 놀이방매트



- “아이가 좋아하는, 유익한 디자인”
명품 캐릭터, 다양한 학습놀이
- “자세히 볼수록 빠져드는 놀이방매트”
안전과 편안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 “아이가 쓰는 제품 청결이 제일이지요”
쉽고, 편리하게 물걸레 하나로 OK
- “매트 위에 넘어져도 안심인 이유?”
LG하우시스만의 탁월한 쿠션감

<p>11% \$179.99 → \$159.99 프라임 고급중형 뽀로로 여행 130x190x1.5cm</p>	<p>13% \$149.99 → \$129.99 프라임 중형 뽀로로 기차놀이 130x190x1.1cm</p>
<p>11% \$279.99 → \$249.99 1등급 놀이방 뽀로로 렛츠고 210x140x1.8cm</p>	<p>11% \$279.99 → \$249.99 아소방매트 210x140x1.8cm</p>
<p>9% \$219.99 → \$199.99 고급초대형 놀이방매트 230x140x1.5cm</p>	<p>9% \$219.99 → \$199.99 프라임 고급초대형 뽀로로 친구들 250x140x1.5cm</p>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0) 뮤추얼 펀드와 세금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은 뮤추얼 펀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소유한 투자자는 1099 서류를 받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에 깜짝 놀랍니다. 한 펀드(Large Cap Discipline Growth Fund)에 \$10만 불을 투자했다면 투자자는 \$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를 팔지 않았어도 뮤추얼 펀드 회사가 팔았기(distribution)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판 결과를 턴오버(turnov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연초에 100개 회사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연말에 가서 연초에 투자한 회사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회사 100개에 투자되었다면 턴오버 된 비율이 100%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턴오버가 200%가 되는 뮤추

얼 펀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특정한 회사를 사고팔았기에 수익(capital gain)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6년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3년에는 주식시장(S&P 500 지수)이 32% 증가했고 작년인 2014년에도 13%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주식시장에서 펀드가 수익을 올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뮤추얼 펀드를 소유한 투자자 모두가 부담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2월 초에 받는 1099 세금 양식이 투자자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직장 은퇴계좌(401k)나 개인 은퇴계좌(IRA)를 통한 펀드 수익률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는 수입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도 나누어집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패시브 투자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말합니다.

미국에 뮤추얼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로 규모가 가장 큰 모닝스타(MorningStar)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역인 크리스틴 벤즈가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움이 커

지는 현상은 주식시장 호황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해가 바로 작년인 2014년이었습니다.”

타박스(Tarbox) 회사가 한 연구 조사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00개 이상의 뮤추얼 펀드가 총자산의 10%를 지급(distribution)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피델리티(International Small Cap Fund) 외국 회사 펀드는 총자산의 16%를 지급했습니다.

한 투자자의 세금이 25%라고 가정해 봅시다. 피델리티 펀드의 16% 지급은 \$10만 불 투자에 세금으로 \$4,000을 내야 합니다($\$100,000 \times 0.16 \times 0.25 = \$4,000$). 이러한 세금은 뮤추얼 펀드 회사에서 1099를 받을 때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입니다. 투자 대부분이 이러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었다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몫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는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팔고서 나옵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펀드 매니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한 돈이 하락했는데도 나중에 세금까지도 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러한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Foreign Housing Deduction)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의 'EARNED INCOME'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에 '해외주거비공제(근로소득자는 Foreign Housing Exclusion, 자영업자는 Foreign Housing Exclus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란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중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납세지(tax home)가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bona fide resident test 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해외주거비에 포함되나?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화 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나 주택구입비, 가구구입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나?

먼저 이 규정은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가 아래의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초과할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거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한도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기준금액은 \$99,200의 16%인 연 \$15,872(일 기준 \$43.48)입니다. 이는 2014년도는 임차료 등의 해외주거비 지출액이 연 \$15,872(일 \$43.48)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대환 씨가 2014년에 주거비용으로 \$20,000을 지출했다면, 그는 기준금액 \$15,872를 초과한 \$4,128(= \$20,000 - \$15,872)를 EARNED INCOME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2014년 해외주거비가 \$15,000이었다면, 기준금액(\$15,872)에 미달하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해외주거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IRS가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IRS는 공제대상 해외주거비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한도금액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주거비공

제 대상인 해외주거비 최대금액은 \$99,200의 30%인 연 \$29,760(일 기준 \$81.53)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주거비가 연 \$29,760을 초과하더라도 \$29,760만 해외주거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해외주거비공제 최대금액이 연 \$13,888(일 기준 \$38.0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인 연 \$29,760(일 \$81.53)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5,872(일 \$43.48)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주거비로 1년간 \$29,760이상 지출한 납세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13,888를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같이 생활비가 비싼 지역은 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서울과 같이 타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들이 있습니다. IRS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은 연 \$57,100(일 기준 \$156.44)입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은 1년에 최대 \$41,228(= \$57,100 - \$15,872)을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 기준 \$112.9%). (기타 도시별 해외주거비의 한도액은 Form 2555 설명서를 참조)

Foreign Housing Exclusion(또는 Deduction)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적용 순서는?

Foreign Housing Exclusion은 근로소득자에게 Foreign Housing Deduction은 자영업자(self-employed)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근로소득에는 Foreign Housing Exclusion을, 자영업소득에는 Foreign Housing Deduction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일한 규정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함께 적용할 때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foreign housing exclusion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foreign housing exclusion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foreign housing exclusion은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가 Foreign Housing Deduction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할 때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먼저 하고 Foreign Housing Deduction을 나중에 해야 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우스터 공과 대학교 (WPI) 2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WPI의 또다른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다. 전체 학생들중 약 60% 이상이 학교 졸업 요구사항 중 하나인 프로젝트를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끝낸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밖 도시나 타 국가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사우스 아프리카, 태국, 홍콩, 뉴질랜드, 인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4,123명의 학부생들이 485명 교수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학생과 교수의 비율은 14대 1로 소수 정예 교육을 받고 있다.

리서치

WPI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있는 분야와 관련된 리서치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리서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WPI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Cyber security, Data Science, Energy and sustainability, Fire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Learning Science and Technologies, Life Science and Bio-engineering,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Robotics 등의 분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40개 이상의 연구소들이 있고 대표적인 연구소들로는 Bioengineering Institute(BEI), Antenna Laboratory, Wireless Innovation Laboratory, Metal Processing Institute, Healthcare Delivery Institute, System Engineering and Leadership Institute 등이 있다.

캠퍼스 라이프

학교가 보스톤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다양한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보스톤에서 주말 여가를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캠퍼스 활동으로는 Winter Carnival, Weekend Movies, Greek Week, Winter Ball, Comedy Festival 등이 있고, 학교가 NCAA Div. 3에 소속되어 있으며 18개의 팀 스포츠가 있다. 특히 RPI와는 아카데미와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매년 두 대학간에 큰 스포츠 라이벌전 이벤트가 있다.

학교 내에 200개 이상의 클럽 활동이 있고, 대표적인 클럽 활동으로는 클럽 스포츠, 아트와 음악, 종교, 과학, 봉사활동, 문화들과 관련

된 것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우스터시와 그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학부생의 약 30% 정도가 그리 라이프(Greek life: 교내 남, 여 사교클럽활동)를 즐기고 있다.

등록금 및 재정보조

2014-2015년도 신입생들의 등록금은(기숙사비가 포함된) \$55,504이고 재정보조 신청자들중 약 90% 정도의 학생들이 재정보조 수혜를 받았다.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제공되고 외부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과 리서치 기금 역시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다.

입학 절차와 전략

WPI는 Early Action 1과 2가 있는 학교로 11/1과 1/1일 조기지원 원서 마감을 한다. 조기지원으로 이 학교에 합격해도 타학교 진학이 가능한 형태의 입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SAT1과 ACT 점수는 만약 학생들이 Flex Path Option으로 한다면 즉 사이언스 프로젝트, 리서치 페이퍼, 리더쉽 경험, 포트폴리오, 발명, 기업 활동 등의 기록을 제출하

면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4년 그리고 과학 2년을 수강한 성적표, 추천서, 에세이, 토폴 성적들이 필요하고 학교가 공통원서와 보조 원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정시 지원시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근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3.85, SAT(Critical reading + Math) 점수가 1240-1410, ACT는 28-32점 정도를 받았다.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 중 하나로 알려진 대학이다.

입학 전략은 첫째 우수한 학점과 리서치 경험, 둘째 우수한 추천서와 리더쉽 경험, 셋째 조기 지원(Early Action), 넷째 높은 SAT나 ACT 점수등이 입학에 유리하게 한다.

WPI는 많은 한국 학생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성적이 평균 B학점 정도가 된다면 입학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대학은 아니지만 학교 명성이 높고 입학은 까다로운 학교로 잘 알려진 대학이다.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은 대학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취직률이 매우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 (마고북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의 입학생 선발 정책” 인종 차별 소송 2

1988년에 하버드대학 입학처장으로 있던 윌리엄 휘츠시먼즈 학장은 아시아 학생들은 학교성적은 좋으나 과외활동에서 "slightly less strong" 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학생들은 모두가 공부만해서 점수만 올리려는 "originality" 없는 학생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개성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고 백인 학생들보다 독창력이 없다는 것은 오래된 편견이며, 또 동양계 출신 학생들이 리더십이나 커뮤니티에 공헌한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 컬럼에서 야사 명크가 뉴욕타임스에서 말해듯이 수십년 전에 유대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unoriginal, grasping careerists," 즉 독창력이 없으며 좋은 직업만을 찾으려는 학생들"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사실 2006년에도 프린스턴에 불합

격통지를 받은 Jian Li 라는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이 프린스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입학생 선별정책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미국 정부기관인 U. S. Education Department 's Office for Civil Rights 에 소송을 제기했다. Jian은 자신이 상위 1%로 졸업했으며, SAT 만점, AP 시험은 9개에다가, 과외활동으로 봉사단체 리더, 코스타리카까지 가서 봉사를 했다는 완벽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불합격이 되었다. 결국 예일 대학에 입학되었지만 그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인 학생이 자신보다 못미치는 시험점수를 가지고 프린스턴의 합격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Jian은 입학원서 인종표시란에 "Asian"이라고 표시하는 난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까 봐 일부러 필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first language"를 쓰는 곳에는 "Chinese"라고 써야했고, 부모이름

을 보면 학교 측에서는 그가 아시아인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Jian의 주장은 Affirmative Action policy 때문에 아시아 학생들이 큰 손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근거로 당시 프린스턴 사회학과 토마스 에스펜세이드 교수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없다면 10개 엘리트대학들의 흑인학생들의 합격률이 당시 33.7%에서 12.2%로 떨어지고, Hispanic 도 26.8%에서 12.9%로 떨어지며, 백인 학생들은 23.8%에서 24.3%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동양인 학생은 당시 23.7%에서 31.5%로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연구에 의하면 명문대학 10개를 조사한 결과 동양인 지원자들은 평균 SAT 140점을 더 받아야 백인학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2012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인도계 학생이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불합격 받은 후 비슷한 인종 차별 소송

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프린스턴은 18%가 아시아 학생이었고 하버드는 16%였다. 예일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던 Kara Miller 는 Boston Globe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5% 밖에 되지 않는 동양인들이지만, 솔직히 동양인 학생만으로도 예일의 신입생의 반을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이 많다. 학교성적, 시험성적도 좋으며, 이민자 부모들이 영어도 못하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열심히 노력한 스토리의 장본인들이다. 하지만 예일 대학은 신입생의 반을 아시아 학생들로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인종비율을 보면 동양계 학생의 비율이 40%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은 법으로 대학입학원서에 인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프린스턴의 작년 입학생 중 아시아 학생 비중은 21%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급년 하버드 열리

합격자 중 아시아 비중이 작년 열리 21.6%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보듯이 affirmative action이 아시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에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성적 우수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 SF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대학 총장과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스톤 연방법원에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학에 제기한 SFFA 소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연방 대법원의 최종결정은 다른 대학의 입학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수년전 미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듯이, 아시아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